

Since 1992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Vol. 408
DECEMBER 2025 12

Cover Story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COLUMN - 경계의 밤, 열리는 음악

Cultural Issue - 음악과 함께, 한해를 향한 작별인사!

낙동의 첫 올림
말러 교향곡 8번

1. 10.(토) - 11.(일) 17:00

오페라 아이다

2. 5.(목) - 6.(금) 19:30

2. 7.(토) - 8.(일) 17:00

발레 백조의 호수

2. 27.(금) 19:30

2. 28.(토) 17:00

외 17개 공연

From the River, For the World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2026. 1. 10. 토 ~ 3. 5. 목



2025 송년음악회

BRITISH MODERN AND BAROQUE

E. Benjamin Britten
A Ceremony of Carols

G. F. Händel
Dixit Dominus

지휘 이기선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U.K.O.

2025. 12. 4. THU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공연문의 | 051-607-6000(ARS 1번)



Chamber Series V Zoom-In III

실내악시리즈 V
줌인 III

글리에르 |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작품, Op.35
R. Gliere | Three pieces for Horn and Piano, Op.35

메르크 | 변주곡, Op.12
L. H. Merck | Variations, Op.12

브람스 | 바이올린과 호른, 피아노를 위한 3중주, Op.40
J. Brahms | Trio for Violin, Horn and Piano, Op.40

호른 백상홍 피아노 성민주
호른 박용인 바이올린 이상진

2025. 12. 2. Tue. 19: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제19회 스페셜 아티스트

철근 위의 백조

SWAN ON STEEL



2025. 12. 27 sat 5:00pm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아이디발레단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예매 20%할인)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관람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관람문의 | 051. 220. 5811~4



부 산 발 레 시 어 터
THE NUTCRACKER

2025 호두까기 인형

2025. 12. 17(수) 19:00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 관람신청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 라이프 → 골티켓
- 신청기간 2025. 12. 10(수) 17:00 ~ 12. 16(화) 24:00

 Play on Busan [부산에서 즐기다]

'Play on Busan'은 지역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 국악, 가요등의 음악 공연부터 연극, 코미디,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DECEMBER 2025 VOL. **408**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편집책임 남양옥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담당 박수빈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1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8 Column
경계의 밤, 열리는 음악
- 10 Cultural Issue
음악과 함께, 한해를 향한 작별인사!
- 12 무대 뒤 사람들
사진작가 이호형
- 14 현대미술산책
폭발하는 캔버스, 미국 현대미술의 시작
- 20 Cover Story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24 Preview
- 34 Review
- 36 Program Guide
- 47 객석에서
- 48 New Book
- 50 BSCC News
- 54 2026 공연프로그램 안내

경계의 밤, 열리는 음악

글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우리는 잠들기 전 음악을 들으며 하루에 묻었던 감정들을 털어내곤 한다.

12월은 그렇게 한 해 전체를 마무리하는 때다.

인간은 종종 희망에 앞서 정리와 작별의 시간을 갖는다.

음악은 한 해의 감정적 잔여물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수행적 장치이자, 마음의 용량을 새롭게 마련하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정화는 단순한 감정 비움이 아니라 기억을 윤리적·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음악은 흩어진 기억의 파편을 천천히 되살리고, 이름 붙이며, 마침내 내려놓도록 돕는다.

이때의 기억은 억눌림이 아니라 의미의 형태로 자리한다. 예술이 시간과 기억을 재배열하는 은밀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도시마다 제야음악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진다. 그곳은 지난 시간의 아쉬움과 흥분을 정리하는 정화의 성소이자, 시간이 미적으로 직조되는 장소가 된다.

한 해를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의례는 인류의 오랜 풍습이었다. 한해의 끝과 시작에서 벽사진경을 기원하며 음악과 춤을 올리던 연희의 전통은 경계의 시간에 예술을 불러오던 인간의 본능을 증명한다.

국립국악원에서 매년 12월에 공연하는 <나례(儺禮)>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무속 의례와 음악은 지난해의 묵은 어둠을 털어내고, 새해의 빛을 부르는 한국형 정화의례의 미학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재건을 시작한 베를린에서도 예술을 통한 정화의식이 태어났다. 실베스터 콘서트(Silvester Konzert)가 그것이다.

실베스터는 12월 31일, 곧 새해 전야를 의미한다. 이는 12월 31일 선종한 로마의 제33대 교황 실베스테르 1세의 축일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그는 교황으로서 기독교 교리 수호와 교회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제야음악회(New Year's Eve Concert)> 역시 독일어권에서는 실베스터 콘서트라고도 불리며, 1977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시작한 이후 매년 12월 31일마다 이 의례를 이어가고 있다. 베를린의 실베스터 콘서트는 축제의 흥겨움보다, 음악적 깊이를 통한 내적 성찰과 균형의 미학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음악 속에서 일상의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누구였는지'와 '내가 되고자 하는 나' 사이의 빈 공간, 즉 미학적 리미널리티(liminality)에 머물게 될지도 모르겠다. 2025년에는 키릴 페트렌코의 지휘와 테너 벤자민 베른하임의 협연으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필하모니 베를린



(재)부산문화회관 2024 제야음악회



일러스트: 성시원

메인 오디토리움에서 차이코프스키 <에브게니 오네긴> 서곡 및 렌스키의 아리아, 가브리엘 포레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조곡 3악장 '시실리엔느', 샤를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여!' 아리아 등 아홉 곡이 연주된다. 아마도 사라지는 한 해의 흔적과 새해의 여명을 선율로 빚어낼 것이고, 이 순간 음악은 시간을 재편하는 미적 형식이 될 것이다.

가장 이른 어둠을 맞는 런던에서는 수천 개의 LED 촛불로 연주회장을 밝히는 <캔들라이트 콘서트(Candlelight Concerts)>가 열린다.

2025년 12월 31일 밤, 성 마리 르 스트렌드 성당에서 피카딜리 신포니에타가 헨델 <메시아> 중 'Rejoice Greatly', 비발디 <사계> 등 여러 곡을 연주한다. 이곳에서 촛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소리를 시각화하는 장치가 되고, 음악은 시간을 재조직하는 감각적 의레이자 소멸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예술적 형식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25년 부산에서도 12월 31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야음악회>가 오른다. 이 무대는 시민과 청년예술인이 함께 협연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8월 시민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고 9월부터 연습에 돌입했다. 이 연주회에서 시민은 더 이상 청중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무대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서며,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통을 열어젖힌다. 같은 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2025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가 열린다. 도시들은 각

자의 방식으로 시간의 문을 닫고 열며, 고유한 감각과 기억을 담아 자신들만의 연발 의례를 이어간다.

제야음악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음악을 듣고, 박동이 같은 리듬을 공유하며 한 해의 끝이라는 시간적 사건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는 빅터 터너가 말한 커뮤니티아(communitas)- 위계와 역할이 사라진 채 순수한 인간적 접촉이 일어나는 공동체적 순간-를 떠올리게 한다. 공연장은 경계의 시간 속에서 공동 감정을 느끼게 되는 장소가 되고, 청중들은 공동체의 리듬을 만드는 미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시간의 끝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구성물이다.

12월 31일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그 끝에 의식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간의 끝을 '의미 있는 끝'으로 만들고, 정서적 감응을 넘어 자기 성찰을 촉발하는 윤리적 장치가 된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

남은 건 빛을 던지는 것뿐이야”

— 한강, <거울 저편의 겨울 2>

빛을 던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제야의 음악을 찾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내년에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새해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미적·윤리적 시간이 되고, 새해의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빛을 던지듯 내리는 결단이 된다.

음악과 함께, 한해를 향한 작별인사!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오늘날 세계 곳곳은 물론 한국에서도 매해 송년음악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친숙한 연말 레퍼토리가 오르고 있다. 자연스레 이 시기에는 경쾌한 춤곡, 오페레타, 밝은 성격의 교향악이 쏟아진다. 그중 연말의 분위기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레퍼토리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해마다 전국 각 공연장에 오르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무슨 일이?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이브를 배경으로 한다. 클라라의 상상 속에서 크리스마스트리가 자라나고, 선물 받은 호두까기 인형이 기사로 변신해 쥐 왕과 싸우며, 결국 사탕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이다.

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초연 때 반응은 미적지근했지만,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작품의 운명이 달라졌다. 1944년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이 크리스마스 시즌 상설 레퍼토리로 올리고, 1954년 뉴욕시티발레단이 안무가 조지 발란신에 새롭게 다듬은 버전을 매년 크리스마스에 공연하면서, ‘호두까기인형’은 본격적인 연말 전용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북미의 주요 발레단은 연간 티켓 수입의 약 40%를 이 작품 한 편에서 벌어들인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에서는 1974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현 세종대) 무용과가 4회에 걸친 전막 공연을 선보여 ‘한국 초연’의 역사를 썼다. 이후 국립발레단이 1977년 전막 공연을 선보였고, 1985년 국립발레단이, 1986년에 유니버설발레단이 연말 공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시작하며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은 ‘크리스마스’로 시작하는 청춘극이다. 1막과 2막은 19세기 파리 라탱 지구의 크리스

마스이브이다. 추운 다락방에서 시인 로돌포와 화가 마르첼로가 난로에 원고를 집어넣어 겨우 몸을 녹이고, ‘모두스’ 카페 앞 거리에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 사람들과 군악대, 아이들, 행상들이 뒤엉킨다. 하지만 3막과 4막에서 계절은 혹독한 2월 새벽과 여름으로 넘어가고, 사랑과 가난, 병이 뒤섞이며 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진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크리스마스에 ‘라 보엠’을 올리는 건, 달콤한 핫초코를 내놓고 마지막엔 쓴 에스프레소를 들이키게 하는 것 같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연말 특수! 합창으로 목소리를 모아라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연말의 노래’로 불리고 있다. 4악장에 등장하는 ‘환희의 송가(Ode to Joy)’ 선율은 유럽연합(EU)의 공식 찬가로 채택될 만큼, 보편적 형제애와 평화를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다. 가장 극적인 예는 일본이다. 12월이면 일본 전역에서 수백 건의 ‘합창’ 연주회가 열린다. 만 명이 함께 부르는 ‘만인 다이쿠(一万人の第九)’ 같은 거대 합창 공연이 연말 뉴스의 단골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1945년 전후(戰後) 일본 사회가 ‘함께 노래 부르며 공동체를 확인하는 세속 축제’를 필요로 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유럽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12월 30~31일, 혹은 1월 1일에 교향곡 9번을 연말·신년 콘서트로 연주하는 관행이 굳어진 지 오래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연말 레퍼토리의 또 다른 왕좌를 차지한다. 1741년에 작곡된 이 작품은 성서의 내용을 토대로 예언·탄생·수난·부활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그려 내는데,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합창단이 많다. 특히 영국의 허더즈필드 합창단은 1864년 이래 매년 크리스마스에 ‘메시아’를 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2002년부터 12월마다 ‘메시아’를 핵심 공연

으로 선보이고 있다.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BWV 248)는 6개의 칸타타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12월 25·26·27일, 새해 첫날, 그다음 주일, 주현절(1월 6일 예술의 출현날)까지 교회력에 맞춰 나눠 연주하도록 작곡되었다.

오늘날 독일·오스트리아 여러 도시와 음악페스티벌에서는 작품의 일부나 전곡을 선보이는 것이 12월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펫과 팀파니가 어우러지는 화려한 합창과 서정적이며 목가적인 레치타티보가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연말의 화려함과 신년의 고요함'을 동시에 품은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송년'이라는 말이 유독 종교성과 세속성이 겹쳐지는 시기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바흐의 이 작품은 그 경계를 가장 정교하게 소리로 구현하는 음악이라 할 수 있겠다.

어두운 터널 같았던 한 해를 지나, 밝은 기운으로!

홉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원작 동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숲에 나간 남매가 과자집을 발견하고,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를 꾀로 물리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연말에 이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서운 동화'를 안전한 극장 안에서 함께 통과하는 경험 자체에 있다. 어둠과 공포, 달콤한 유혹과 가족의 귀환이라는 이야기와 흐름은 한 해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연말의 심리 구조와도 닮아있다. 오페라로 태어난 '헨젤과 그레텔'은 국내에서도 '동화 오페라'나 '어린이용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연말뿐만 아니라 가족의 달인 5월에도 단골로 오른다.

이 작품은 작곡가 홉퍼딩크의 누이 아델하이트 베테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크리스마스용 동요에서 출발했다. 이후, 이 노래가 점점 확장되어, 독일 바이마르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1893년 12월 23일 초연되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였기에 일찍부터 크리스마스와 연결되어 왔다. 올해도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극장에는 12월 26일 저녁 공연으로 오른다.



흥겨운 파티 분위기의 오페레타 '박쥐'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음악의 수도이기도 한 빈 시민들에게 연말과 연초는 곧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의 시즌이다. 작품은 감옥에 가야 할 신사 가브리엘 폰 아이젠슈타인이 친구의 장난에 넘어가 가면무도회에 가면서 벌어지는 오해와 이를 위한 복수극이다. 부인 로잘린데는 자신을 속인 남편에게 되갚아주기 위해 변장하고 파티에 나타나고, 샴페인과 왈츠가 난무하는 가운데 모든 인물이 서로를 속이고 속다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구조다. 빈 국립오페라극장은 12월 31일과 1월 1일에 '박쥐'를 올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2025/26 시즌에도 마르쿠스 포슈너 지휘, 오토 쟁크 연출의 프로덕션을 편성했다.

'헨젤과 그레텔'이 가족 중심의 연말 작품이라면, '박쥐'는 '어른들을 위한 연말 희극'이다. 지난 한 해의 실수와 바보스러운 허영심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샴페인 잔을 들고 "그래도 내년엔 잘해보자"고 말하게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산에서도 1950년대부터 음악과 함께 연말을 장식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1979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송년음악회'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걸어 이를 본격화했다. 상기한 레퍼토리들은 지금도 연말 레퍼토리로 각광 받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송년 공연과 레퍼토리를 여러 예술가와 단체들이 기획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하여,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부산만의 송년 공연도 기대해 본다.

사진작가 이호형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대체로 공연에서는 촬영이 허락되지 않는다. 공연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연출자와 배우들, 아니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관객들이 무대에만 집중해 주길 원한다. 그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저마다의 빛을 내기 시작하면 객석은 엉망이 된다. 그래서 극장의 관계자들은 휴대전화기가 보이는 대로 달려가서 촬영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방해가 된다. 악순환이다. 그래서 촬영이 허락된 특별한 공연이 아니라면 그 어떤 극장에서든 전화기나 카메라는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어두운 데서 찍어봐야 온전한 사진도 나오지 않는다. 그 와중에 촬영이 허용되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 관객

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 숨어, 무대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셔터를 누르는 공연전문 사진가. 오늘은 그중에서도 30년 넘게 무대 위의 ‘움직임’을 기록해 온 이호형 작가를 만났다.

그이의 사진들을 보노라면 어떤 무용수가 언제 발을 딛고, 손을 뻗고, 몸을 회전시키며, 어느 각도에서 에너지가 정점으로 치달는지를 몸으로 먼저 느끼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이에게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잡아내느냐고 묻는다. “위낙에 오래 찍다 보니까 배우나 무용수의 다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원하는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경력이 짧은 배우나 무용수일수록 그 움직임이

잘 예측되고, 반면에 훌륭한 배우나 노련한 무용수일수록 그 움직임이 예상 밖으로 나가요. 몸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더 긴장을 하고 촬영에 몰입을 하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고요.” 움직임으로 말하는 무용을 시간 속에 붙잡아두는 작업은 기록 면에서 유용하다. 몸짓은 지나가지만, 그 찰나를 붙잡아 기록하며 다음을 기대하게 만든다. 어쩌면 그이가 붙잡아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복기하며 음미하는 것 아닐까.

이호형 작가는 또 이런 말도 한다. “주로 무용하는 분들을 찍다 보니까 느껴지는게 있는데요. 문외한이긴 하지만 무용수에게도 전성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지도, 또 너무 나이 들지도 않은... 그 적절한 타이밍일 때 몸의 선과 그 움직임이 몹시 아름답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중앙무대로 가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남아서 곳곳이 무대를 지키는 분들이 더 소중하고, 그 의리를 생각하면 저도 무대를 떠나기가 힘든 겁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역을 탄탄하게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연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려면 무대 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하거든요.”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절실함, 또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본 사람의 현실적인 목소리이기도 했다. 사실 그이도 지역의 무대를 지키며 공연사진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는 힘들다. 경성대 앞에서 ‘루카(Luka)’라는 이름의 사진관을 운영하며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진을 찍는다. 누가복음의 저자 ‘루카’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해져야 하는 빛과 복음을 기록하여 전하는 사람이었다. 루카 스튜디오가 흥해야 부산의 공연사진에도 생기가 돌겠다.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부지런히 ‘기록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의 캐비닛에는 30년 넘도록 찍어온 공연사진들이 수만 장 쌓여있다. 사라진 무대와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생생한 날들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국립민속국악원, 전국무용제, 부산국제무용제 등 수많은 공연과 무용축제가 그의 카메라를 거쳤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산과 공연예술의 아카이



궤변, 임연희 안무, 60X50cm, Inkjet Print



영혼의 춤, 강인숙 안무, 60x50cm, Inkjet Print

브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한때는 무대 위에 빛났던 사람들이겠지만 지나간 시간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걸 계속 기록해 왔을 뿐입니다. 기록하는 중에 작품도 나오고, 추억도 있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그리는 것이고...” 담담하지만 묵직하다. 어둠 속에서 관객과 무대의 흐름을 헤치지 않도록 숨을 고르고, 빛의 변화에 몸을 낮추며, 무용수의 호흡을 자신의 호흡처럼 따라가는 사람. “사진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예요. 춤을 추는 사람, 무대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나는 그 사이에서 그냥 조용히 셔터를 누르는 거죠. 사진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기교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은 애정과 기다림, 그리고 꾸준함이 주는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진을 오래 찍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호형 작가는 오늘도 공연장을 찾아가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암약하며 빛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공연사진을 오래도록 보고 싶다. 우리는 조용히 무대를 감상하고, 촬영은 그이에게 맡겨두자.

폭발하는 캔버스, 미국 현대미술의 시작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뒤로하고 예술가들은 미국행 배에 몸을 실었다. 신대륙에서 노(老)화가 몬드리안은 재즈의 자유로운 리듬에 심취했고, 바우하우스를 지휘했던 인물들은 여러 교육기관에 들어갔으며 에른스트와 살바도르 달리는 초현실주의를 설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2차 대전 기간, 미국은 유럽 거장들의 무대가 되면서 전후 미술 중심지는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미국 미술계는 유럽 미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기에, 신대륙의 예술가들은 구대륙의 영향을 벗어난 새로운 예술을 고민했다. 그 결과, 터져 나오는 감성을 자유로운 행위로 그리는 추상표현주의가 탄생한다.

1940~5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한 추상표현주의는 데 스틸이나 초현실주의처럼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통일된 이론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다르게, 여기에는 완전히 추상적이지도, 그다지 표현적이지도 않은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적 토양 위에서 형성되었기에, 추상표현주의로 불리는 이들은 엇비슷한 면모를 보여준다. 리드미컬한 선, 뿜어져 나오는 색채가 커다란 캔버스를 뒤덮는다.

1930년대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시하였고, 생계가 궁핍한 예술가들을 ‘공공미술사업계획’에 투입하였다. 고키, 드 쿠닝, 폴록, 로스코 등 미래에 추상표현주의자로 불릴 화가들은 공공장소에 벽화를 그렸는데, 광활한 벽면 작업은 거친 자연을 대면하며 사투를 벌이는 것과도 같았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아실 고키, <간은 수탉의 뱃이다>, 1944, 캔버스에 유채, 186x249cm, 올브라이트-녹스 미술관, 버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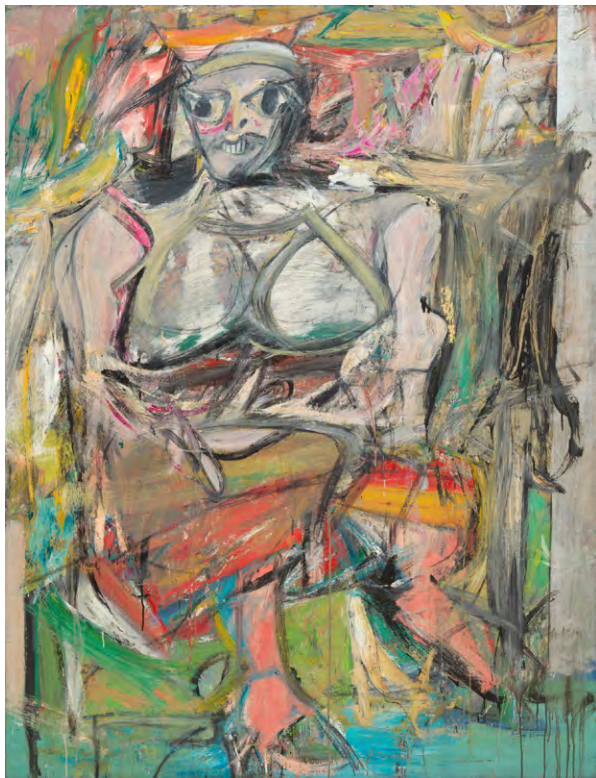
인간 신체를 훌쩍 넘어서는 거대한 캔버스에 감정을 다루는 것으로 등장한다.

1940년대가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가 미국 미술계를 물들인다. 무의식의 자유로운 표현인 자동기술법을 바탕으로 앙드레 마송, 이브 탕기 등이 보여준 생물 유기체적 형상은 미국의 젊은 화가들에게 고전주의적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다. 이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인간과 삶에 대해 고뇌했고, 그 해답을 인류 문화의 원형인 신화와 이를 분석한 프로이트, 카를 융의 정신분석학에서 찾고자 했다. 젊은 예술가들의 관심은 정신과 종교가 결합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예술로까지 확장되었다.

아실 고키(Arshile Gorky, 1904~1948)는 유럽과 미국

을 있는 다리 역할을 했다. 10대 시절 대학살을 경험한 아르메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고키는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를 익히면서 공간 구성원리, 자동기술, 유기적 형태 등을 실험했다. <간은 수탉의 벼이다>(1944)에서는 식물, 신체, 풍경 등이 뒤섞인 형상이 등장하는데, 형태가 명확하진 않지만, 감정의 흔적이나 기억의 조각들이 선명한 원색을 입고 서로 투쟁하듯, 감싸듯 뒤엉켜 있다. 제목은 시적이고 암시적인데, 간은 생명력, 열정을 수탉의 벼은 남성성, 투쟁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캔버스는 삶의 열정과 내면의 고통이 만나는 장(場)이 되어 색채로 타오른다. 고키는 유럽의 지적 추상을 감성 중심의 미국적 추상으로 전환하였다.

네덜란드 출신의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은 부드러움과 공격성을 함께 그려내면서 인간 내면의 양가성을 보여준다. 1950년대부터 제작한 <여인> 연작을 계기로 드 쿠닝은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의 '여인'은 미술사에서 슬하게 보았던 아름다운 여인과



윌렘 드 쿠닝, <여인 I>, 1950~52, 캔버스에 유채, 192.7x147.3cm, 뉴욕현대미술관

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추상화를 그렸던 드 쿠닝이 여성이라는 진부하면서도 구상적 주제를 그렸다는 점에서 퇴보했다는 평까지 나왔다. <여인 I>(1950~52)에는 관람자를 위협하는 듯 툭 튀어나온 눈에 이빨을 드러내고, 풍만한 가슴을 한, 마치 야만인으로 표현된 여인이 앉아 있다. 드 쿠닝은 원시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 미술의 이상적인 여인 누드에 도전했다.

<여인 I>에서는 문지르고 긁어내고 덧칠하는 폭력적인 붓질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내 형상과 배경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이러한 폭력성은 솟아오르고 가라앉는 신체의 에너지를 시각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추상 회화가 주도적인 시절, 여성의 형상을 회화 속으로 다시 불러들여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욕망과 소유, 불안과 공포로 대표되는 양가감정을 육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드 쿠닝은 인체 표현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인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였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화가로 미국 미술이 유럽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불안감과 알코올중독은 평생 폴록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지만, 그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의 무의식 이론에 매료되었다. 융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집단무의식이 내재해 있기에, 서로 다른 문화권임에도 정신적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원형은 신화, 종교, 예술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폴록은 그리스·로마 신화, 초현실주의, 원주민 예술에 관심을 가졌고 여기서 작품 주제와 표현을 끌어 올렸다.

<암늑대>(1943)는 로마를 건설한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 흰색과 검은 테두리의 늑대가 화면을 채우고 있고, 빨간색,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채들이 거칠면서도 자유롭게 칠해져 있다. 폴록을 높게 평가한 비평가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화면에서 문학적 상징을 없애고 대신 회화 본연의 요소인 캔버스의 평



잭슨 폴록, <암늑대>, 1943, 캔버스에 유채, 106.4x170.2cm, 뉴욕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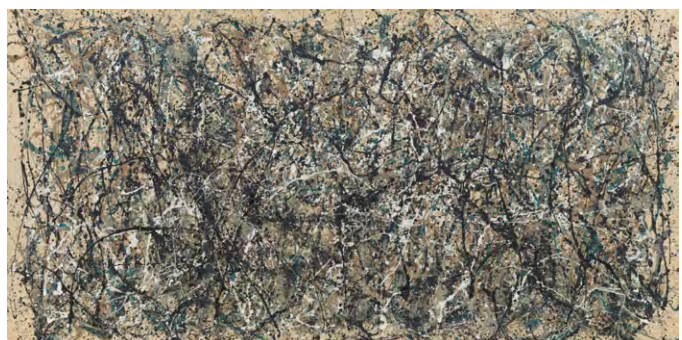
면성, 순수한 형태와 색채를 강조할 것을 조언했는데, 미술이 다른 것을 은유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현대 순수미술, 즉 모더니즘이라는 것이다.

후원자 폐기 구겐하임의 집을 장식할 벽화를 의뢰받고 고심을 거듭하던 폴록은 의뢰자의 재촉으로 하룻밤 만에 대작 <벽화>(1943)를 완성하였다. <벽화>는 가로 6m, 세로 2m가 훌쩍 넘는 거대한 화면에 맹렬한 기세로 그려낸 작품으로 작가의 격정적인 붓질이 화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도, 검고 푸른 선과 노란 색채가 리듬감을 자아낸다. 한편 <벽화>는 회화에서의 구성과 중심을 해체하고 캔버스 전면을 활용하여 올오버 페인팅(All-over Painting, 전면화)을 보여주면서 회화의 가능성과 개념을 확장하였다.

1947년 이후, 폴록은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실험적 기법,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래 그림 등을 연구하며 새로운 회화를 고민하던 중, 붓에서 뚝뚝 떨어진 물감이 캔버스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재빨리 이를 응용하

여 커다란 화폭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주변과 위를 걷고 뛰면서 물감을 뿌렸고, 그것도 모자라 페인트를 가져와 들이부었다. 자각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난 화가의 즉흥적 행위는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자취를 남겼고, 화면은 역동성이 폭발하는 동시에 리듬감을 자아냈다. (<No. 31>, 1950) 이젤 위에 세운 캔버스라는 기존 관념을 깨고, 바닥에 펼쳐진 캔버스 위, 매끈한 붓질 대신 우연에 의한 드리핑(dripping)은 회화의 관습을 일거에 부수었다. 비평가 로젠버그(Harold Rosenberg, 1906~1978)는 폴록의 작품을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 명명했다.

고키, 드 쿠닝, 폴록은 격렬한 몸짓과 폭발하는 감성을 즉흥적으로 분출하며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 양자역학으로 대표되는 세계의 불확정성과 무의식의 대두라는 시대적 상황을 미술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녹여내 보여주었다. 한편, 추상표현주의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예술의 중심지가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첫 증거이기도 하다.



잭슨 폴록, <No. 31>, 1950, 캔버스에 유채, 에나멜 페인트, 269.5x530.8cm, 뉴욕현대미술관

INVITATION TO THE

가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대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상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영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ED
	1	2	3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V '중인 III' 19:30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번역가의 서재> 번역가 14:00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8	9	10
소향과 함께하는 BNK 송년음악회 17:00 6만원·4만원·2만원/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8회 정기연주회 '제9번' 19:30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19:30 KNN(010-5693-2111) 어릴적에 매칭데이 14:00 부산시립예술단(607-6000)
14	15	16	17
날씨의 아이 - 필름 콘서트 15:00 10만원·8만원·6만원·5만원 필뮤직컴퍼니(010-8675-4559)		부산콘서트 콰이어 명품합창 시리즈 6번 바흐의 B단조 미사 19:30 2만원/아트락(010-5468-4658)	종말인가 진화인가 19:30 손영일무용단(010-3111-1111) 정아라 첼로 리사이틀 19:30 1만원/정아라(010-5111-1111)
21	22	23	24
MelON 디즈니+ 지브리 오케스트라 콘서트 16:00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아이프로덕션 (010-9184-7496) Ahopsan-아홉산 15:00 2만원/박나훈무용단(010-7111-2933)		2025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15: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866-6363) 2025 브람스 시리즈 IV: 브람스의 심오한 대화 19:30 2만원/에밀레악사중주단(010-7234-3996)	크리스마스 지브리 & 디즈니 11만원·9만원·6만원·3만원 오케스트라(02-6292-1111) 크리스마스 영화음악 & 클래식 19:30 4만원·3만5천원/스테이지(010-5111-1111)
28	29	30	31
오페라 나비부인 17:0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드림문화오페라&오케스트라(010-7794-7967)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골든심포니(010-5823-8565)		테너 김우경 소프라노 황신영 초청콘서트 5만원/부산문화회관(1600-1803)	2025 제야음악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ED	THU	FRI	SAT
	4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British Modern & Baroque>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 솔로이스츠 첼로앙상블 두 번째 이야기 19:30 대 3만원/부산 솔로이스츠 첼로앙상블 (010-8413-7883)	5 부산문화 3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19:30 대 7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1600-1803) 이보리 피아노 독주회 19:30 대 2만원/이보리(055-385-2200)	6 2025부산불교합창제 '눈꽃처럼 맑은 희망을 노래하다' 17:00 대 무료/(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867-0501~3)
김난주 '번역의 뒤안길' 회관(607-6000)	11 제29회 부산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대 부산교사합창단(010-6602-2671)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모든날, 모든 순간> 19:30 대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어릴적에 매칭데이 14:00 사 초대/부산시립예술단(607-3112)	12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모든날, 모든 순간> 19:30 대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10회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19:30 대 벨라무지카(010-5520-8728)	13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The Angel's Song> 17:00 대 3천원·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모든날, 모든 순간> 17:00 대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는 제9회 청소년을 위한 2878) 00 3112)	1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교류음악회'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영화 같은 나의 이야기2 - 선물 19:30 대 초대/(사)빛을 나누는 사람들(010-2833-3932)	19 윤예지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대 초대/윤예지(010-9235-9356)	20 Ahopsan-아홉산 16:00 대 2만원/박나훈무용단(010-7111-2933)
30 581-2156) 9:30 572-0406)	25 크리스마스 지브리 & 디즈니 OST 콘서트 16:00 대 11만원·9만원·6만원·4만원/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02-6292-9368,9370)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부산 11:00, 14:00, 16:00 대 5만원/극단화랑(1800-6567)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빛의 경계, 시간을 건너는 이야기' 17:00 대 2만원/양상블 크로노토프(050-6661-4188)	26 더뉴앙상블과 함께하는 아르떼 유스 4회 정기연주회 19:30 대 아르떼예술단협동조합(988-3087) 테너 이태훈과 함께하는 낭만가곡과 아리아 대 2만원/부산문화(1600-1803)	27 오페라 나비부인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드림문화오페라&오케스트라(010-7794-7967) 74회 감성콘서트 調和 조화(서로 잘 어울림) 18:00 대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010-3346-4146)
스니 OST 콘서트 19:30 4만원/밀레니엄심포니 2-9368,9370) 캐롤 콘서트 2025 - 부산 이지M(0507-1338-4810)			전시실 제51회 부산미술대전 · 11월 25일(화)~12월 20일(토) 입장료 : 무료 문의 : 051-632-2400 제11회 부산서예비엔날레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전- · 12월 24일(수)~12월 28일(일)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4507-3657

SUN

MON

TUE

WED

1

2

3

7

8

9

10

제11회 부산국악축제 II '여성국극 가야산 연가'
17:00
소 초대/(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051-644-5211)

14

15

16

17

2025 뮤지컬 <맘마미아!> - 부산 14:0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주)인 엔터(1588-0766)
오레스테스 17:00
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051-645-3759)

모먼트뮤직오케스트라 총
대 1만원/모먼트뮤직오케-

21

22

23

24

2025 임한별의 별(別) 연말 콘서트
<크리스마스스타(A Christmas' Star)> in 부산
16:00
대 15만4천원·14만3천원/NOLE티켓(1544-1555)
누나의 길 15:00
소 3만원/극단 더블스테이지(051-502-1012)

제3회 바다음악회 19:30
대 무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051-660-3603)

28

29

30

31

ED

THU

FRI

SAT

4

5

6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30

티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나는 예술가다> 국악반 특별발표회 19:30

소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4:00

티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12

13

2025 뮤지컬 <맘마미아!> - 부산 19:30

티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주)인 엔터(1588-0766)

오레스테스 19:30

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051-645-3759)

2025 뮤지컬 <맘마미아!> - 부산 14:00, 19:00

티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주)인 엔터(1588-0766)

오레스테스 17:00

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051-645-3759)

18

19

20

단연주 <다시, 시작!>
스트라 (010-4125-4335)

2025 임한별의 별(別) 연말 콘서트
<크리스마스스타(A Christmas' Star) in 부산>
16:00

티 15만4천원·14만3천원/NOLE티켓(1544-1555)

누나의 길 15:00

소 3만원/극단 더블스테이지(051-502-1012)

누나의 길 19:30

소 3만원/극단 더블스테이지(051-502-1012)

25

26

27

2025 V.O.S 전국투어 콘서트 <동창회> - 부산
17:00

티 9만9천원·7만7천원/쥬에프엘엔터테인먼트
(1899-4150)

크리스마스 가족뮤지컬<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11:00, 14:00, 16:30

소 3만5천원(사전예매시 2만5천원 구매가능)/
극단 오즈(1661-6702)

세빛제 19:00

소 초대/브니엘예술고등학교(010-2067-3647)

대니 구 윈터 콘서트<HOME> 17:00

티 8만원·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세빛제 19:00

소 초대/브니엘예술고등학교(010-2067-3647)

전
시
실

도홍 김상지 가족 서예전

· 12월 3일(수)~12월 7일(일) 전시실 1,2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8794-0514

제27회 한일미 국제사친교류전

· 12월 9일(화)~12월 14일(일) 전시실1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3556-3539

제32회 부산초대사친가회 회원전

· 12월 16일(화)~21일(일) 전시실1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3643-2996

한

· 12월 9일(화)~12월 14일(일) 전시실2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7155-2560

제3회 일퍼센트 정기전

· 12월 16일(화)~12월 20일(토) 전시실2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3458-5382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6일(토)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겨울을 물들이는 환상의 발레

국내 최정상 무용수들이 선사하는 환상의 무대,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이 올겨울 부산을 찾는다. 오는 12월 5일과 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의 선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スイ브, 주인공 소녀 마리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인형과 함께 떠나는 환상적인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풍부한 감정선과 정교한 발레 테크닉이 조화를 이루는 겨울의 대표 명작이다.

대한민국 대표 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클래식 발레부터 현대 창작 발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호두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존 노이마이어의 <인어공주> 등이 있으며, <해적>(2020년)과 <돈키호테>(2023년)를 국립발레단만의 해석으로 각색·재안무하며 전막 발레 레퍼토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왕자호동>, <호이 랑>등 창작 발레를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거장 유리 그리고로비치

이번 국립발레단이 부산에서 선보일 <호두까기인형>은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을 30년 이상 이끈 거장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버전이다.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천부적인 예술적 감각과 혁신적인 안무로 러시아 발레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며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아왔다. 볼쇼이발레단 예술감독 재임 기간 동안 그는 ‘20세기 발레 영웅’에 걸맞게 수많은 명작을 재창조하거나 새롭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걸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1963, 1973), <호두까기인형>(1966), <백조의 호수>(1969)와 아당의 <지젤>(1987) 등 고전 발레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클래식 발레의 정수, <호두까기인형>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선율과 국립발레단의 정교한 군무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부산 시민들에게 한겨울 가장 따뜻한 예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눈부신 무용수들의 에너지와 섬세한 감정선, 그리고 화려한 무대미술이 조화를 이루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이 올겨울, 관객들을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발레 <호두까기인형>

키워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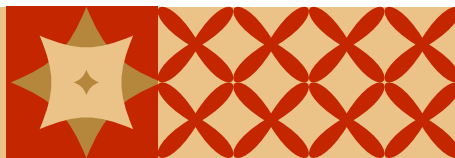
글 양우제 예술의전당 공연장운영부장

1. SINCE 2000 1892년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의 <호두까기인형>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세계 초연된다. 이후 74년이 흐른 1966년, 볼쇼이발레단 예술감독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새롭게 안무한 <호두까기인형>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소개된 이후 이른바 유리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꾸준히 공연된다. 다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입소문으로만 그 명성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00년 12월, 국립발레단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그리고로비치의 <호두까기인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관객에게 선보이게 된다.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단순히 안무 저작권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내한하여 단원들을 직접 지도하며 국립발레단의 레퍼토리 확장과 단원들 기량 향상에도 기여를 했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은 극 중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가 이야기를 소개하고 어린 무용수가 호두까기

인형으로 등장하는 부분 또한 다른 <호두까기인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동화 스토리에 전투 장면과 그랑 파드되(주인공 남녀 무용수가 추는 2인무) 같은 역동적인 안무를 적절하게 넣은 점도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2.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악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경쾌한 왈츠 음악은 그야말로 <호두까기인형> 안무와 찰떡궁합. 음악만 따로 들어도 크리스마스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 있다. 이 작품을 처음 보는 관객이라도 언젠가 들어봤음 직한 이유는 바로 '진짜 들어봤기 때문'이다. 어디서일까. 달콤한 이미지가 생명인 커피,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피자나 12월을 앞두고 선물 세트, 백화점, 쇼핑몰, 장난감 광고 배경음악으로 <호두까기인형>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영화·드라마에서는 어린이가 나오거나 놀이공원 배경 장면에서 <호두까기인형> 음악이 자주 등장한다. '꽃의 왈츠', '행진곡', '눈송이 왈츠', '설탕 요정의 춤'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곡들이다. <호두까기인형>을 보고 난 후 TV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배경음악을 들을 때마다 크리스마스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연상 작용 또한 이 작품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3. 첼레스타 '사탕 요정의 춤'에는 실로폰 같으면서도 작은 종소리와 비슷한 신비스러운 음색이 마치 솜사탕 같은 멜로디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 평소 보기 힘든 이 악기의 이름이 바로 첼레스타(Célesta)다. 외관은 집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와 비슷하고 건반을 누르면 악기 내부에 있는 현을 해머가 때리는 피아노와 달리 첼레스타는 금속판을 때려 소리를 낸다. 차이콥스키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첼레스타 소리를 듣고 매료되어 <호두까기인형>에 최초로 사용해 훗날 널리 알려지게 된다.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로로> 중 '바람



이 지나가는 길', 영화 <해리포터> 中 '헤그워드 테마'에서도 첼레스타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4. 우리 아이 첫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발레 작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을 통틀어 아이가 가장 먼저 보는 첫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이다. 어떤 어린이는 이 작품을 보고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를 꿈꾸며 마침내 마리와 왕자로 무대에 서고, 또 극장에서 일하거나 발레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스태프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부모님을 추억한다. 최근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대한민국 출신의 무용수가 많아졌는데 그 일등 공신 중 하나가 바로 <호두까기인형>이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터. 이번 <호두까기인형> 공연을 본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 발레스타가 될 수도 있다.

5. 세계 5개국 댄스 경연 <호두까기인형> 2막에는 마리와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러시아, 프랑스, 중국, 스페인, 인도 인형들 민속춤이 등장한다. 이 춤은 전체적인 줄거리로 볼 때 없어서 되는 장면이지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며 즐거움을 제공한다. 발레에서는 이렇게 줄거리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춤의 향연을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이라 한다. 5개국의 특징을 잘 포착해 낸 의상과 동작은 때로는 코믹스러우면서 앙증맞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한 회전과 역동적인 점프 동작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 중에서도 인도 인형 춤은 유리 그리고로비치 안무 버전에만 있는 요가를 연상시키는 고난도 동작으로 눈여겨 볼만하다.

6.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전 세계에서 12월이면 가장 많이 공연되는 발레 작품이 <호두까기인형>이라면 12월이 아닐 때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르는 발레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백조의 호수>라는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아름다운 군무와 4인무가 백미인 <백조의

호수>도 바로 작곡가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다. 두 작품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공연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작품 <잠자는 숲속의 미녀>까지 흔히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걸작으로 꼽는다. 기회가 되면 <호두까기인형>과 나머지 두 작품도 꼭 감상해 보시길.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걸작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 발레 마니아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말하고 싶다.

7. 에피소드 극장에서 일하면서 2000년부터 매년 <호두까기인형>과 관객을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수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만 소개한다. 매년 12월이면 비슷한 시기와 시간대에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로 다른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을 공연하다 보니 관객이 혼동하기 십상. 공연 시작 20분 전에 도착한 외국인 가족 4명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예매를 해놓고 서초동 예술의전당으로 왔다. 아뿔싸!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1막은 놓치게 될 터. 그날은 크리스마스이브라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자칫하면 공연 전체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종문화회관 하우스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했더니... 마침, 세종문화회관에도 예술의전당 <호두까기인형> 티켓을 예매해 놓고 잘 못 찾아온 외국인 가족 4명이 있단다. 그럼 서로 바뀌어서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흔쾌히 승낙해 무사히 극장으로 입장. 공연이 끝나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엄지척' 제스처를 하며 온 가족이 환하게 웃던 그 외국인 가족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많은 에피소드 중에 이 외국인 일화를 가져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아무쪼록 이번 12월 5일(금)과 6일(토) 부산시민회관(동구 자성로 소재) 대극장에서 펼쳐질 <호두까기인형> 공연에 한 명도 실수(부산문화회관으로 가지 마시고)하지 않고 잘 도착하셔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메리 크리스마스!

Adieu 2025 Welcome 2026

을사년乙巳年을 마무리하는 다채로운 송년무대

한 해의 끝자락,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의 희망을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의 부산MBC와 함께하는 2025송년음악회 <British Modern & Baroqu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The Angel's Song',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함께 가는 길, 동행', 대니 구 만의 따뜻한 감성이 담겨있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에릭사티와 음악으로 그리는 '비움과 채움'의 주제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2025 제야음악회>등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음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함께 나누는 송년음악회에 어떤 무대가 펼쳐지는지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99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25 송년음악회 <British Modern & Baroque>**

12월 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송년을 맞아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영국의 합창음악

12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British Modern & Baroque가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영국의 대표 작곡가 헨델과 브리튼의 작품을 통해 바로크와 현대음악의 예술적 조화를 한 무대에서 조명하며, 송년의 의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와 축복의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브리튼의 크리스마스 시즌 대표작으로 꼽히는 ‘A Ceremony of Carols’를 통해 하프와 합창이 어우러진 청아하고 섬세한 울림으로 연말의 따뜻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총 11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때로는 경건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프와 합창의 섬세한 조화로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소프라노 김하정, 방효은, 테너 최원갑, 하프 정주희가 함께해 브리튼 음악 특유의 섬세한 감정을 전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바로크의 거장 헨델의 ‘Dixit Dominus’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화성, 하프시코드와 오르간 등 고악기가 지닌 풍부한 음색을 통해 바로크 시대의 예술적 감성을 재현한다. 빠른 템포 속에서도 정교한 리듬과 화성의 긴밀한 조화를 요구하며, 헨델 특유의 극적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다. 소프라노 김나영, 최현서, 알토 김지윤, 테너 최원갑, 베이스 김태우, 오르간 박지연, 하프시코드 이은정이 함께해 작품의 다채로운 음향을 완성한다.

이번 연주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 단원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함으로써 개개인의 예술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영상과 소품을 활용한 무대 연출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연의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장엄한 울림과 화려한 연출의 감동이 어우러진 부산시립합창단 2025년 송년음악회는,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U.K.O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The Angel's Song**

12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3천원, S석 2천원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함께 부르는 천사들의 노래

<하계합창캠프>를 통해 한층 성장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9월 정기연주회에 이어, 오는 12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



지휘 천경필



지휘 김철수



소프라노 구은경



부산시립합창단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장에서 열리는 제168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The Angels' Song」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1부는 수려한 선율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John Leavitt의 「Festival Mass미사 (축제미사)」로 문을 연다. 고전과 현대의 화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으로, 웅장한 울림을 전한다. 이어 청아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소프라노 구은경이 「무곡」과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Ah, fors'è lui... Sempre libera(아, 그이인가 봐 ...)」를 선보인다. 구은경은 스페인 J.Aragall 국제콩쿨 특별상 수상자이자,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및 라 스텔라 오페라단 단

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1부의 마무리는 최지우의 「아침노을」, 박수연의 「토끼와 부르는 노래」, 윤학준의 「무지갯빛 하모니」, 박진영의 「웃는 나 웃는 날」로 꾸며진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곡들로, 화려한 안무와 함께 동요의 순수한 감성을 무대 위에서 펼칠 예정이다.

2부에는 부산의 자랑,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 출연해 열기를 이어간다. 지휘자 김철수의 지휘 아래, 「복춤」 시작으로 「날좀 보소」, 「Butterfly」, 「크리스마스 메들리」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은 섬세한 음악적 감수성과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개성 있고 풍부한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필리핀 민요 Maria Theresa Vizconde-Roldan 「Pong Pong Piyangaw」와 절도 있는 안무가 돋보이는 T. gibson 「Dancel」, 강현나의 「겨울 산타타」, 조혜영의 「Fantastic Christmas」가 연이어 무대를 채운다. 다양한 색채와 에너지를 담은 이번 무대는 합창의 예술적 깊이와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복희의 「우리」를 전 출연자가 함께 부르며, 「천사들의 노래 The Angel's Song」의 대미를 장식한다. 화려한 음악과 따뜻한 울림으로 채워질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연말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출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은경(소프라노), 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김보은(신디), 김진훈, 김은호(타악기), 지역문화예술인_부산대재학생(문세빈, 박찬비, 백소이, 손찬미))

부산지립국악관현악단 제233회 정기연주회

부산지립국악관현악단 &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함께 가는 길, 동행>

12월 18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동해선을 따라 흐르는 두 도시의 선율

올해 부산-강원(부산-강릉) 동해선 개통을 기념하고, 두 도시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지립국악관현악단 &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가 지난 4월 강릉아트센터 합동공연에 이어 오는 12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부산지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이동훈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창환의 지휘, KNN 아나운서 정희정

의 사회로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김창환 작곡의 '美! 樂! 挖! (Miracle)'로 문을 연다. '아름다움(美)'과 '즐거움(樂)', 그리고 '기쁨의 분출(挖)'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악관현악 작품이다. 전통 장단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해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음향적 입체감과 역동성이 돋보여 무대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작품 '네오 민요'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담아 전통 민요에 새로운 색채를 입힌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와 부수석 정선희,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 김은정의 협연으로 지역 민요의 다채로운 맛을 들려준다.

세 번째 3개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다. 산조는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 형태를 갖춘 음악이며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배열되며 반드시 장고나 북의 장단 반주와 함께 연주되는 대표적인 전통음악이다. 국립국악원의 위촉으로 가야금·거문고·소아쟁 산조 가락에 맞게 관현악 구성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무대에는 가야금 윤경선, 거문고 이대하, 아쟁 홍영혜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이 함께한다.

네 번째 무대는 최경만 구성의 '호적풍류'를 새롭게 편곡해 경기도 태평소 선율을 바탕으로 국악관현악과 잘 어우러지도록 만든 협주곡이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권용석이 무대에 올라 태평소 고유의 기교와 호방한 맛을 선사한다.

이어 판소리부터 뮤지컬, 대중 예능까지 국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국악계 아이돌' 소리꾼 김준수와 함께하는 '사철가-사랑가-아리랑 메들리'가 무대를 채운다. 사계절의 흐름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과 삶의 의미를 노래하는 '사철가를 시작으로, 창극 <춤향>의 진가가 드러나는 대목 '사랑가'가 현대적 편성으로 재해석된다. 마지막 '아리랑 메들리'는 각 지역의 아리랑을 엮어 만든 작품으로, 기존 밴드 사운드가 가지고 있던 형태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만의 음색으로 담아냈다.

끝으로 레트로 감성 8090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최성수의 협연 무대로 공연의 정점을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시 오는 봄',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Whisky on the Rock' 등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열창한다.

동해의 바람과 남해의 파도처럼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국악 명곡은 물론, 새롭게 빛어낸 창작곡과 두 악단의 협연 작품들을 통해 부산과 강원 이 서로의 색채가 어우러져 음악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 지휘/ 이동훈, 김창환 • 사회/ 정희정
- 남도민요/ 박성희, 정선희 • 경기민요/ 김은정 • 가야금/ 윤경선 • 거문고/ 이대하 • 아쟁/ 홍영혜 • 태평소/ 권용석
- 소리/ 김준수 • 가수/ 최성수



지휘 이동훈



지휘 김창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단체



사회 정희정



남도민요 박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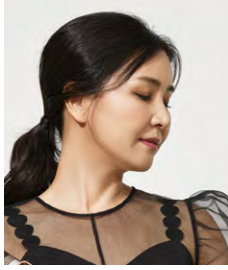
남도민요 정선희



경기민요 김은정



가야금 윤경선



거문고 이대하



아쟁 홍영혜



태평소 권용석



소리 김준수



가수 최성수

202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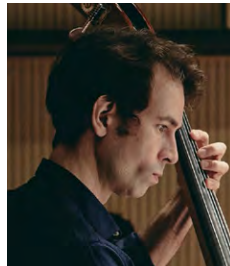
바이올린 대니 구



피아노 조윤성



드럼 석다연



베이스 셀 펜트랜드

울겨울, 가장 빛나는 대니 구의 음악의 집

12월 2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수놓을 가장 따뜻한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특별한 연말 콘서트가 열린다. 밝고 따뜻한 감성과 깊은 진중함을 겸비한 그는 이번 공연에서 음악으로 가득 찬 “HOME”으로 관객들을 초대해 연말의 잊지 못할 선율을 선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2016년 ‘앙상블 디토’로 국내에 데뷔한 이후,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레퍼토리와 자유로운 감성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JTBC <슈퍼밴드 2>를 통해 “대중에게 감성을 전하는 힘이 탁월한 뮤지션”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올해 7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첫 단독 리사이틀 <SUMMER>를 성황리에 마치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대니 구는 이번 공연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한다. 그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피아니스트 조윤성, 드러머 석다연, 베이스리스트 셀 펜트랜드와 함께 풍성한 사운드를 선보인다. 클래식, 재즈, 그리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매력적으로 재해석해 다채롭게 꾸며질 이번 공연은 관객이 온전히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또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곡들로 채워진다. <Twilight Waltz>, <Humoresque>, <Blue Rondo à la Turc> 과 같은 매력적인 레퍼토리부터 <I'll Be Home for Christmas>, <L-O-V-E>와 같은 크리스마스 명곡까지 새롭게 재해석해 선보인다.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빛나는 선율들은, 관객에게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을 전한다.

2025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은 울겨울,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의 향연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따뜻한 감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 해의 끝자락을 빛나는 선율로 장식하고,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함께 느껴 보길 바란다.

• 출연/ 대니 구(바이올린), 조윤성(피아니스트), 석다연(드러머), 셀 펜트랜드(베이스리스트)



202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5 제야음악회: 에릭사티와 음악으로 그리는 '비움과 채움'

12월 31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지휘 이동신



소프라노 김민정



바리톤 안세범



바이올린 정원영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연말의 선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동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시민 오케스트라'와 '청년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부산의 겨울밤을 따뜻한 음악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의 '15분 도시 부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5분 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기타(Guitar)등> 프로그램과 연계해 부산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지난 2025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교육 과정을 거쳐, 제야음악회 무대에 오른다. 또한 9월, 제야음악회 오케스트라 참여를 위해 (재)부산문화회관에서 공개 모집한 지역의 젊은 클래식 음악 '청년 연주자'와 시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무대에 올라, 세대 간의 교류와 예술적 시너지를 선보인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정원영이 협연자로 참여해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연주하며 깊이 있는 선율로

감동을 전한다. 이와 함께 부산 출신의 소프라노 김민정과 바리톤 안세범이 출연해 한 해의 끝을 따뜻하고 낭만적인 무대로 장식한다.

공연은 '비움'과 '채움'을 주제로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고요한 성찰에서 희망의 고조로 이어지는 음악적 흐름을 통해 관객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1부와 2부의 시작을 모두 에릭 사티(Erik Satie)의 곡으로 열며, 사티 특유의 단순하고 투명한 선율은 한 해를 정리하는 고요한 '비움'의 정서를 담고, 이어지는 또 다른 작품에서는 새해의 설렘과 '채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야마무라 코지(Koji Yamamura)의 영상 작품 <Parade de Satie>가 함께 상영되며, 음악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펼친다.

웅장한 하모니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무대가 2026년의 시작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이다.

• 출연/ 이동신(지휘자), 김민정(소프라노), 안세범(바리톤), 정원영(바이올린)



<Parade de Satie>
©Koji Yamamura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6회 정기연주회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말리의 울림으로 한 해를 채우는 끝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12일(금) 부산콘서트홀에서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의 지휘로 말리 교향곡 제3번을 선보이며, 한 해의 끝자락에서 거대한 스케일과 깊은 감동이 어우러진 웅대한 사운드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공연이 열리는 부산콘서트홀은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빈야드 스타일의 2,000석 규모를 자랑한다. 충분한 음압과 넓은 음폭, 선명하고 충만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세계적 수준의 공간으로, 이번 연주의 장대한 스케일을 더욱 입체적으로 빛내줄 무대다.

이날 연주되는 말리 교향곡 제3번은 아홉 개 교향곡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작품이다.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연주 시간만 약 100분에 이른다. 인간의 경험과 존재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곡은 애수 어린 선율로 고요한 평화를 그려낸다. ‘천상의 세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지상의 음악’이라 평가받는 작품으로, 솔리스트와 합창, 어린이 합창이 더해져 장엄한 울림을 완성한다.

메조소프라노 이아경이 솔리스트로 참여해 천상의 음색을 더한다. 그녀는 한국인 최초로 제34회 벨리니 국제 콩쿠르에서 단독 1위를 차지했으며, 알카모, 마리오 델 모나코, 벨루티 등 여섯 개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단독 1위 우승을 거둔 성악가다. 다니엘 바렌보임, 정명훈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협연하며 독보적인 음악성을 입증했고, <그대 있음에>, <크리스마스 인 러브>, 부천필 <말리 2번> 등 다수의 음반을 발매했다.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은 ‘젊은 명장’으로 불리며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지휘자다. 전통 레퍼토리는 물론 현대음악과 오페라에서도 깊이 있는 해석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무대에는 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청소년합창단이 함께한다.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들이 서로 다른 연령대와 개성을 어우러지게 하며 말리 3번의 장대한 합창장면을 완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라벨 전곡 시리즈에 이어 2024년부터 말리 교향곡 사이클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그 여정의 정점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부산시향의 음악적 비전을 담아낸 무대가 될 것이다.



지휘 홍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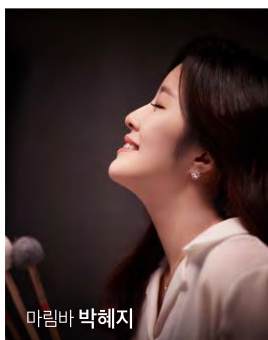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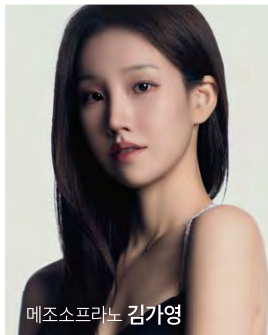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3



마림바 박혜지



소프라노 이동민



메조소프라노 김가영



테너 이명현



베이스 유명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8회 정기연주회

제9번

한 해의 끝, 음악으로 이어지는 화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8회 정기연주회 ‘제9번’이 오는 12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30대 젊은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연주력을 선보이며,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공연의 문은 일본의 대표적 마림비스트이자 작곡가 게이코 아베의 프리즘 랩소디로 열린다. 일본 전통음악과 서양 현대음악의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한 곡으로, 경쾌한 리듬과 독창적인 음색, 고난도의 기교가 돋보인다. 맑고 투명한 마림바의 울림과 역동적인 리듬이 어우러져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협연자인 피커셔니스트 박혜지는 2019 제네바 국제 콩쿠르 타악기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관중상, 청소년 관중상, 야마하 영 아티스트상, 베제로 마림바상 등 총 6개 특별상을 모두 석권하는 기록을 세워 국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15 벨기에 국제 마림바 콩쿠르 1위 및 4개 특별상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타악기 연주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현재는 오케스트라 협연, 리사이틀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연말을 장식하는 상징적 레퍼토리,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무대를 이어간다.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장엄한 합창은 인류의 단결과 우애를 찬미하며,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는 소프라노 이동민, 메조소프라노 김가영, 테너 이명현, 베이스 유명현이 함께해 웅장한 감동을 더한다.

지휘자 백승현이 이끄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지역 음악 문화의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이번 공연에는 부산시립합창단과 2025시즌 클래식부산합창단이 함께해 세 단체의 조화로운 하모니와 에너지가 ‘제9번’ 무대를 한층 깊이 있게 완성한다. 한 해의 끝자락, 아쉬움이 스며든 겨울밤을 음악으로 물들이는 이번 연주회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화합의 선율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12월 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5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모든 날, 모든 순간

작은 파편에서 발견하는 삶의 광희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연극 <모든 날, 모든 순간>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해당 작품은 주인공 '선영'의 삶을 따라가며, 삶 속의 광휘를 발견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생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일상의 결을 섬세하게 비춘다.

무대의 배경이 되는 삼봉리는 바쁜 아침, 나른한 오후, 그리고 술 한 잔으로 고단함을 씻어내는 저녁이 층층이 쌓인 공간이다. 삼봉리의 하루는 기차 소리와 파도, 밥 짓는 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공존하는 이 마을에서 아이들은 자라며, 청춘은 사랑하고, 어른들은 버티고 견디며, 우리는 어느새 떠나보내는 법을 배워간다. 연극 <모든 날, 모든 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별, 그 기억들을 따라가 우리가 놓치고 지나친 사소한 기척들을 다시 불러내어, 우리의 아침과 낮, 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한다.

주요 등장인물은 무대감독과 그를 보좌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이씨가족(선영의 가족), 김씨가족(동식의 가족), 동네 사람들, 오공주(선영의 친구들), 오충사(동식의 친구들)로 이루어진다.

이번 작품의 객원 연출가인 김민우는 매일같이 흥흥한 뉴스가 화면을 채우는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각박한 현실의 참담함만을 나누는 이야기는 공허함만 남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놓쳐온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고 하며, 현실에 매몰되어 하찮은 것과 중요한 것이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극을 통해 드러내며 시시하게 여겼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 되는 이 시선은 작품의 정서와 맞물리며, 관객에게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감각을 건넨다.

연극 <모든 날, 모든 순간>은 삶을 이루는 작은 파편들에 집중하며, 일상 속에서 반짝이는 광휘를 발견하게 하는 작품이다.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각자의 하루가 지닌 의미를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일깨우며, 잊고 있던 삶의 온도를 다시금 무대 위에 되살린다.



12월 11일(목)~13일(토)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UN 창설 80주년 기념음악회



EMBASSY
OF BELGIUM

글 브루노 안스 주한벨기에대사

H.E. Bruno Jans,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Belgium to the Republic of Korea

부산에서 열린 기념음악회에 초대해 주시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념행사에 벨기에가 참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서뿐 아니라, 내년에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와 대한민국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상징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 드미트로 초니(Dmytro Choni) 씨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교적으로도 탁월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울림이 있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갈등의 격화가 아닌, 협력의 논리와 화합의 정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에스트로와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연주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존경해 온 예술가인 조수미 씨의 깊이 있는 노래 역시 감동적이었습니다.

초니 씨가 다시 한국을 찾아 리사이틀을 선보인다면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이처럼 뜻깊은 공연을 개최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message and for the invitation to the commemorative concert in Busan. It was important for Belgium to be present at such a meaningful occasion, not only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but also in view of our close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 will celebrate next year on the 125th anniversary of our diplomatic relations.

I was particularly struck by the captivating interpretation of Rachmaninoff's demanding concerto by the Ukrainian virtuoso pianist Mr. Dmytro Choni. His performance was not only artistically remarkable but also symbolically moving, given the ongoing war in Ukraine. At such moments, one realizes how much the logic of cooperation and the spirit of concord can achieve, rather than the escalation of division. Our thoughts could not but turn to the Ukrainian people.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maestro and the orchestra for their excellent performance, and to add a word of admiration for the profoundly moving singing of Ms. Sumi Jo, an artist I have long admired.

It would be a great pleasure to see Mr. Choni return to Korea for another recital, and I thank you once again for organizing such a memorable event that powerfully conveyed the message of peace through the arts.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 영국

글 박진홍 음악평론가

10월 30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홍석원의 지휘와 해설로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마지막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홍석원은 지휘자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설득력과 전달력으로 편안하게 곡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하듯 이어갔고, 적당히 재치 있는 유머를 섞어서 전달하면서 연주회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날 연주는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오른 다섯 개의 시리즈 중 하나로 헝가리, 아메리카, 북유럽, 프랑스에 이어 마지막 프로그램이었고, 엘가, 헨델, 윌리엄스, 베를리오즈가 작곡한 작품을 연주했다.

첫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웅장하고 경쾌하게 시작했다. 그동안 보여 주었던 부산시향의 연주는 기량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전체적인 사운드의 균형감과 섬세함이 특히 돋보였다. 하지만 중극장 무대에 비해 편성이 커서 무대가 시각적으로 꽤 찬 느낌이 주는 불편감이 들었고, 중극장의 특성상 시선이 무대 아래쪽에서 위를 올려 보다 보니 오케스트라 전체 악기를 조망할 수 없어 다소 답답함을 느꼈다.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 잔향보다는 직접음이 우세한 음향으로 각 악기의 윤곽선이 날카롭게 드러났고, 무대의 에너지가 가공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객석으로 쏟아지며 압도적인 에너지를 보여 주었다. 잔향이 적어 건조한 느낌이 있는 소리의 질감이 도드라지면서 이제 갓 봄의 기운이 돌고 있는 거대한 숲 산책로 앞에 있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곡으로 하프리스트 황세희가 연주한 헨델의 하프



협주곡은 완전한 봄의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숲속 연못을 연상케 했다. 헨델은 대작 오라토리오를 무대에 올리던 시기에 틈틈이 이 하프 협주곡을 작곡했다. 헨델에게는 큰 작품을 창작하는 고된 시간 사이에 잠시의 휴식이 되었을 작품이다. 그래서인지 이 곡은 바로크 시대의 우아함과 숲을 거니는 듯한 목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하프라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악기를 통해 신성하면서도 세속적인 양면성을 선사한다. 황세희는 바로크 시대의 전통적인 느낌을 벗어나 다이내믹을 다채롭게 살리고, 루바토적인 표현을 통해 낭만적으로 풀어냈다. 동시에 오라토리오의 공연 도중 작곡된 만큼 교회 음악적 경건함을 세련되게 표현했다. 현악기의 맑은 음색과 하프의 은은하면서도 매끄럽게 튀어 퍼지는 울림이 잘 어우러져 기분 좋은 풍부함을 자아냈다.

앵콜로는 러시아의 작곡가 글린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연가곡 “이별” 중 ‘종달새’를 연주했다. 이 곡은 글린카의 작품을 발라키레프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하고 그것을 다시 아그자리안이 재편곡한 작품으로 발라키레프의 편곡보다 원곡의 선율을 더 또렷하게 내세우며 서정성과 러시아 민요의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황세희는 아르페지오를 유연하고 화려하게 구사하며 이국적 선율을 이끌어 냈고 피아노곡과는 다른 하프로 연주하는 매력을 충분히 살려 연주했다.

다음 곡으로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즈 환상곡이 연주되었다. 많은 관객이 익숙해하고 아련한 추억에 빠져들도록

선율이 평온하게 흘렀다. 주제 선율은 담백하고 꾸밈없이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되었다. 이어지는 변주는 섬세한 다 이내믹 대비를 통해 몽환적 분위기로 나타났다. 곡의 중 반부, 홍석원은 흘러가는 선율에 무게감을 덜어내고 여유로운 공간감을 만들어 갔고, 파스텔로 그려진 풍경을 그리듯 채색해 갔다. 템포를 두드러지게 대비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리듬을 구현해 환상곡 특유의 서정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곡의 마지막 잔향을 충분히 살린 마무리를 만들어가면서 전통 선율의 아련함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냈다.

이어서 베를리오즈의 리어왕 서곡이 연주되었다. 영국 작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관현악 서곡으로 표현한 곡으로 오페라 작품은 아니다. 홍석원의 음악 해석은 감언이설로 어리석은 왕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는 두 딸과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의 뚜렷한 대비를 명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리어왕의 마음에 초점을 둔 듯 들렸다. 특히 전반부는 음악이 주는 서사의 느낌이 마치 내용을 상상하며 호흡이 긴 희곡을 읽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후반부로 전개될수록 입체감이 커져이 쌓이고 극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희곡의 글자들이 종이를 뚫고 나와 현실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앵콜 곡은 위로와 우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 엘가의 님로드가 연주되었다. 도입부는 유영하는 듯 자연스럽 게 흐르는 현악기가 서두르지 않고 프레이즈마다 긴장과 이완을 활용하여 말하듯, 노래하듯 연주했다. 초반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는 점층적으로 감정을 고조시켜 나갔다. 점점 음량을 두텁게 쌓아 올리며 정서의 깊이가 단순한 볼륨의 확대가 아닌 감정이 여러 방향으로 펼쳐지면서 동시에 깊어짐이 느껴졌다.

이번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의 마지막 무대, ‘영국’은 각기 다른 작곡가와 시대가 지닌 서정을 부산시향만의 균형 잡힌 해석과 완성도 높은 연주로 만들어 낸 멋진 공연이었다. 홍석원의 편안한 설명과 연주자들의 깊은 몰입도는 청중에게 음악적 감동뿐 아니라 작품 너머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는 듯한 체험을 선사했다. 특히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연주, 감정의 확장은 부산시향이 최근 보여 온 성숙한 연주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부산시향이 이 같은 기획을 통해 더욱 폭넓은 레퍼토리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시민들과 꾸준히 호흡하며, 우리 부산의 음악적 지평을 더욱 풍요롭게 넓혀가 주길 기대한다.



부산문화회관

부산 솔로이스츠 첼로앙상블
두 번째 이야기

일 시 | 12월 4일(목) 오후 7:30 **첼버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 솔로이스츠 첼로앙상블
010-8413-7883



첼로계 원로이신 “이구일” 선생님이 “부산 첼로 앙상블”이란 이름으로 연주단체를 결성한 지도 이젠 5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20여 년간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 후배들이 모여 “부산 솔로이스츠 첼로 앙상블”이란 이름으로 2024년 재탄생했다. 이번 무대에는 오보에 손양호의 협연과 첼로 앙상블 김대수 외 10명의 연주자들이 함께해 깊이 있는 하모니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왕좌의 게임’, ‘캐리비안의 해적’ OST, 그리고 ‘아리랑 랩 소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클래식와 품격과 영화음악의 생동감을 한자리에서 느껴볼 수 있다.

제10회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2일(금) 오후 7:30 **첼버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벨라무지카 010-5520-8728



바흐의 ‘시칠리아노’를 시작으로 해서 베토벤의 ‘네 손을 위한 소나타 중 2악장 론도’,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5번’, 리스트의 ‘연주회용 연습곡 중 3번 탄식’,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쇼팽의 ‘변주곡’,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쇼팽의 ‘환상 즉흥곡’과 마지막으로 슈만의 ‘현정’으로 마무리된다. 클래식 명곡들의 다채로운 선율로 채워지는 이번 연주회는 관객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느끼는 여운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출 연

· 김미영, 강현아, 조성희, 류희영, 김효빈, 최성경, 김소영, 임예주, 정가희, 최폴린

부산문화 3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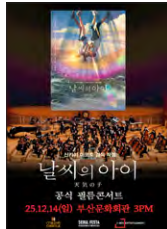
일 시 | 12월 5일(금)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1995년 첫 공연을 시작한 클래식 공연 기획사 부산문화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30주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공연으로 부산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준비했다.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아르떼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반주로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소프라노 강정원, 테너 양승호, 판소리 박성희와 특별 출연으로 가수 윤수일을 초청하여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멋진 음악회이다.

날씨의 아이 - 필름 콘서트

일 시 | 12월 14일(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문 의 | 필름직컴퍼니 010-8675-4559



미디어캐슬, 제이박스, 그리고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본 공연은 영화 상영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필름 콘서트이다. “그날의 하늘, 날씨 그리고 기억,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눈부신 감동”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감동이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함께 무대 위에서 다시 펼쳐진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눈부신 영상미와 RADWIMPS의 감동적인 OST가 만들어낸 찬란한 이야기. 그 모든 순간을 스크린과 라이브 연주로 동시에 경험해 보길 바란다.

2025부산불교합창제
눈꽃처럼 맑은 희망을 노래하다

일 시 | 12월 6일(토)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3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계절, 희망의 노래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울려 퍼진다. 대광명사·삼광사·선암사·불지사·해원정사 등 사찰 합창단 5팀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한데 어우러져 전통 불교음악의 깊이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며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통문화인 불교음악에 대한 친숙과 이해, 흥겨운 향유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며,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연으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공연 활동과 지역 문화 발전에도 힘을 더한다. 색소가이즈, 범어사어린이합창단, 밴드의 특별 무대가 어우러져 소통과 화합, 그리고 감동의 하모니가 피어오른다.

부산콘서트 콰이어 명품합창 시리즈 6번
바흐의 B단조 미사

일 시 | 12월 16일(화)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매년 오라토리오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콘서트콰이어의 6번째 명품합창 시리즈이다. 이번 연주는 서양 음악사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바흐의 ‘비단조 미사’를 연주한다. 전상철 지휘자 그리고 소프라노 노연수, 서이현, 알토 손미숙, 이유진, 테너 조윤환, 베이스 이현성, 박유준, 전명석, 반주는 오르가니스트 이해영과 보스코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이끌어간다. 올해의 마지막을 바흐의 걸작과 함께 풍성하게 장식하며,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따뜻한 연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정아라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12월 17일(수)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정아라 010-5572-0406



2018년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Hamilton Cheifetz의 지도를 받아 귀국한 정아라 첼리스트가 올해 12월 베토벤, 슈만, 슈베르트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작곡되었을 당시 솔로 악기로는 낯설었던 베토벤 첼로소나타 1번과 클라리넷 소나타로 주로 연주되는 슈만의 곡과 현재는 잘 연주되는 얀느 아르페지오네 악기를 위한 소나타를 첼로로 연주할 계획이다.

영화 같은 나의 이야기2 - 선물

일 시 | 12월 18일(목)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빛을 나누는 사람들 010-2833-3932



<영화 같은 나의 이야기>는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내일의 희망을 전하는 음악 공연으로, <빛나사 챔버오케스트라>와 <빛나사 색소폰 앙상블>이 중심이 되어 무대를 이끈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에 맞춘 시 낭송을 시작으로, 클래식한 감성의 가요와 성악가 장원상, 신진범, 최선희의 무대가 이어진다. 색소폰 앙상블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곡을 연주하여 따뜻한 겨울 정서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중창단과 성악가가 함께 부르는 캐롤을 통해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한다.

박나훈 무용단 Ahopsan-아홉산

일 시 | 12월 20일(토) 오후 4:00, 21일(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박나훈무용단 010-7111-2933



박나훈의 춤, Ahopsan-아홉산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형식으로서 춤이 아닌 신체로서 춤을 무대에서 실험하고자 한다.

하나, 극장 안 행위자와 보는 자 - 실재와 재현. 둘, 무대 안과 밖-밖과 안. 셋, 무덤 위 세계와 아래 세계-심연. 숲에 마실을 나온 여섯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춤작품 <아홉산>은 100이 되지 못한 아홉 개의 산, 100이 되지 못한 우리들, 미완의 삶을 표현한다. 유일하게 둥근 무덤을 가진 한국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무덤, 산, 언덕 위아래 그리고 안과 밖의 둥근 형태들이 춤과 만나 새로운 무대 미학을 창조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MelON 디즈니+ 지브리 오케스트라 콘서트

일 시 | 12월 21일(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아이프로덕션 010-9184-7496



마에스트로 정나라가 이끄는 60인조 풀 편성 멜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부에 지브리 명곡들을 기악(트럼펫, 피아노, 하프, 마림바, 바이올린, 첼로) 협연으로 진행하고, 2부에는 뮤지컬배우 윤지인과 클라이막시스트 테너 김은국이 출연하여 디즈니 명곡들을 보컬 갈라 콘서트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다.

토크콘서트 진행자가 MC로 출연하여, 가슴 뭉클한 감동과 재치 있는 웃음을 함께 선사한다. 2025년 연말을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콘서트로, 한 해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줄 힐링 콘서트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2025 브람스 시리즈 IV: 브람스의 심오한 대화

일 시 | 12월 23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경로, 장애인 50% 할인)
문 의 | 에델현악사중주단 010-7234-3996



에델현악사중주단이 선사하는 2025년 네 번째 브람스 실내악 시리즈는 클라리넷 백동훈과 피아니스트 심정운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황혼에 작곡된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는 지나온 삶과 음악이 나누는 고요한 대화이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젊은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가 불안과 열정의 불꽃으로 되살아난다. 노년의 평화와 청춘의 투쟁이 서로를 비추며 완성하는, 한 인간의 내면 여정으로 기획된 「브람스의 심오한 대화」는 음악의 울림 사이 깊은 내면의 감정을 담은 브람스의 음악 세계를 섬세한 앙상블로 재현한다.

크리스마스 영화음악 & 캐롤 콘서트 2025 - 부산

일 시 | 12월 24일(수)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R석 4만원, S석 3만5천원
문 의 | 스테이지M 0507-1338-4810



한 해의 끝자락, 따뜻한 감성으로 마음을 채우는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찾아온다. 트렌디한 클래식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연 제작사 스테이지M의 '크리스마스 영화음악 & 캐롤 콘서트 2025'는 영화 속 감동과 겨울의 낭만을 담은 특별한 무대다. 「나홀로 집에」, 「겨울왕국 II」 등 겨울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영화 속 OST부터 「호두까기 인형」, 「A Christmas Festival」 등 연말 분위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아티스트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지브리 & 디즈니 OST 콘서트

일 시 | 12월 24일(수) 오후 7:30, 25일(목)
4: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8, 9370



상상의 숲에서 울려 퍼지는 지브리의 서정, 꿈과 모험이 가득한 디즈니의 마법. 올겨울, 크리스마스의 밤을 빛낼 단 하나의 무대가 찾아온다.

1부는 지브리의 OST로 구성되었으며, 대표곡으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Merry go round', <벼랑 위의 포뇨>의 'Main Theme' 등 총 12곡이 준비되어 있다. 2부에서는 디즈니의 명곡들이 이어지며, <겨울왕국>의 'Let it Go',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Soda Pop' 등 총 13곡이 선보일 예정이다. 오케스트라가 그려내는 웅장한 선율과 감동적인 보컬의 하모니 속에서, 잊지 못할 음악 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부산

일 시 | 12월 25일(목) 오전 11:00, 오후 2:00,
4:00 중국장
입 장 료 | R석(1층) 5만원(예매 시 50% 할인)
문 의 | 극단화랑 1800-6567



크리스마스이브, 남매인 마리와 프리츠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 드로셀마이어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날 밤, 마리는 장난감 왕국을 파괴하려는 쥐마왕과 호두까기 인형의 놀라운 전투를 목격하게 되고, 얼떨결에 마리와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을 따라 장난감 왕국을 지키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된다. 과연 마리와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왕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화려한 춤 선과 열정적인 라이브 노래로 현장감이 느껴지는 뮤지컬, 크리스마스의 환상과 설렘을 무대 위에 그대로 펼쳐낸다.

제3회 앙상블 크로노토프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빛의 경계, 시간을 건너는 이야기' - 김정화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25일(목)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앙상블크로노토프 050-6661-4188



<앙상블 크로노토프 (Ensemble Chronotope)>는 2022년에 창단한 앙상블 단체로, 음악이 흐르는 '시간'과 울려 퍼지는 '공간'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작품에 담긴 미학적 본질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레퍼토리 연구와 깊은 성찰, 무대적 경험의 확장을 통해 관객과 예술의 언어를 나누고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한다. 2025년에는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빛의 경계, 시간을 건너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이든, 바버, 드뷔시의 작품을 선보인다.

테너 이태훈과 함께하는 낭만 가곡과 아리아

일 시 | 12월 26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태훈이 아름다운 우리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부산대 출신으로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페라과를 졸업한 후 제17회 카세르타 국제 성악 콩쿨 특별상을 수상, 이탈리아 사비노 국제콩쿨 심사위원 만장일치 1위 입상하였다.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동서대학교 연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이다. 풍부한 경험과 성숙한 해석이 더해진 그의 무대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태훈이 아름다운 우리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부산대 출신으로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페라과를 졸업한 후 제17회 카세르타 국제 성악 콩쿨 특별상을 수상, 이탈리아 사비노 국제콩쿨 심사위원 만장일치 1위 입상하였다.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동서대학교 연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이다. 풍부한 경험과 성숙한 해석이 더해진 그의 무대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페라 나비부인

일 시 | 12월 27일(토) 오후 7:30, 28일(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문 의 | 드림문화오페라&오케스트라
010-7794-7967



드림문화오페라단은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동서양 문화 충돌과 아시아 여성의 삶을 다룬 작품을 통해, 예술로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단순 재연이 아닌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과 문화 정체성을 조명하며, 한일 예술인 간의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페라 대중화를 위한 해설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된다. 초초상(나비부인)역은 27일 마리아 김희정이 맡으며, 28일에는 배수진이 맡는다.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8일(일) 오후 5:00 중국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골든심포니 010-5823-8565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제6회 정기연주회 「From Stage to Screen 무대에서 스크린까지」를 선보인다.

클래식의 깊고 풍부한 음색에서 영화·뮤지컬 음악의 친숙하고 감미로운 선율까지 아우르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연말 음악회다. 풍부한 감성과 세련된 표현력이 돋보이는 소프라노 장은영,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는 테너 박성백, 그리고 매력적인 선율과 감성을 담아낼 색소폰리스트 황요한이 함께하여 다채로운 무대의 색채를 더한다. 권니은 지휘자가 섬세한 해석과 균형 있는 사운드로 겨울의 정서와 감동을 담아 일상에 쉽고 울림을 전하고자 한다.

테너 김우경 소프라노 황신영 초청콘서트

일 시 | 12월 30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5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한양대학교 재학시절 중앙 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성악콩쿠르 1위, 핀란드 미리암 헬린 국제콩쿠르 1위,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1위 등 권위 있는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주목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테너 김우경과 한양대학교 졸업 후 밀라노 베르디 국립극원원 만점 졸업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 사르파나 국제콩쿠르 1등 후 한양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에서 전문연주자로 열심히 활동 중인 소프라노 황신영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산시민회관

제11회 부산국악축제 II 여성국악 가야산 연가

일 시 | 12월 7일(일) 오후 5:00 **소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사)한국국악협회부산지회 051-644-5211



고구려 시대, 나라의 일등 공신이자 충신이던 대대로 대감은 모함을 받아 역적의 누명을 쓰고 가문이 몰락한다.

어린 남매 마달(아들)과 아사달(딸)은 충직한 늙은 하인의 손에 이끌려 가야산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자라난다. 세월이 흘러, 남매는 무술을 닦으러 온 젊은 무사 수리를 만나 우정을 쌓고, 아사달은 그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신분 격차와 집안의 반대, 나라의 혼란은 이들의 앞길을 막아선다. 부산의 명인, 명창들이 선보이는 창극무대이며 부산 시민들에게 전통 국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연이다.

2025 뮤지컬 '맘마미아!' - 부산

일 시 | 12월 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2:00, 7:00, 14일(일)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문 의 | ㈜인 엔터 1588-0766



<맘마미아!>와 함께 빛나는 시간을 보낸 최고의 배우들이 다시 뭉쳐 인생에 가장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도나’의 우정과 사랑, 딸 ‘소피’의 자아 찾기. 그리고 엄마와 딸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재미와 감동을 전한다. ‘댄싱퀸’, ‘치키티타’, ‘허니하니’ 등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의 22개의 히트곡과 잔잔한 물결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그리스 섬을 옮겨 놓은 듯 감각적이고 세련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섬세하고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

모먼트뮤직오케스트라 창단연주 다시, 시작!

일 시 | 12월 17일(수)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모먼트뮤직오케스트라 010-4125-4335



이번 연주는 지휘자 김태하와 악장 조무종이 이끄는 모먼트뮤직 오케스트라 창단연주다.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렘과 기다림, 침묵과 극복을 통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투영하고 있다.

1부 주제는 “시작은 어떻게 태어나는가”이다. 작은 만들레 흙씨는 바로 우리 내면 깊숙이 처음으로 일렁인 ‘처음의 떨림’을 노래하고 있으며 2부는 “여정과 연결”로 흙씨의 여정은 고독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서로의 눈빛을 비추며 ‘함께 걸어가는 길’로 이어진다. 이처럼 시작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창단 연주회의 정신을 담고 있다.

누나의 길

일 시 | 12월 19일(금) 오후 7:30, 20일(토)~21일(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극단 더블스테이지 051-502-1012



희로애락, 연극으로 풀어낸 인생의 여정. 누나의 길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다양한 시간에 여성의 삶에 빚대어 말한다.

희로애락은 인생의 연극을 구성하는 네 가지 막으로, 기쁨(희)과 즐거움(락)은 우리의 삶에 색채를 더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노여움(로)과 슬픔(애)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현명하게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이 네 가지 막이 어우러져 인생이라는 연극을 완성한다.

2025 임한별의 별(別) 연말 콘서트 크리스마스(A Christmas Star) in 부산

일 시 | 12월 20일(토)~21일(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5만4천원, S석 14만3천원
문 의 | NOLET켓 1544-1555



겨울 하늘 아래 빛나는 가장 따뜻한 별,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임한별의 연말 콘서트 ‘크리스마스’가 2025년,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돌아온다.

임한별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무대로 겨울에 가장 반짝이는 순간을 선물한다. 한 해의 끝을 노래로 물들이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시간. 올겨울, ‘크리스마스’의 별빛이 관객들의 마음을 수놓을 예정이다. 관객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한 임한별의 ‘크리스마스’ 두 번째 이야기! 그 별 아래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

해안가족과 함께하는 제3회 바다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화)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051-660-3603



본 공연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원사 소속 선원들의 가족, 이웃,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선박 관리 사업 종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업계 이미지 제고와 회원사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2023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협회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서 선원 및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제3회 바다음악회는 한층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보다 많은 출연진으로 공연을 선보여 선박관리업계를 알리고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한다.

크리스마스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일 시 | 12월 25일(목)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입 장 료 | 3만5천원(사전예매시 2만5천원)
문 의 | 극단 오즈 1661-6702



매년 12월 북극 산타 마을에서는 산타할아버지의 썰매를 끌 사슴 선발대회가 열린다. 빨간코를 가진 루돌프 사슴은 남들과 다른 이유로 자신 없어 한다. 그러던 중 사슴 한 마리가 늑대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자, 루돌프의 재치로 동료를 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산타할아버지는 올해 썰매를 끌 사슴으로 루돌프를 선택하게 된다. 아이도, 어른도 설레는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두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으로, 산타할아버지와 루돌프를 믿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다.

2025 V.O.S 전국투어 콘서트 '동창회' - 부산

일 시 | 12월 25일(목)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문 의 | ㈜에프엘엔터테인먼트 1899-4150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목소리. 학창 시절, 첫사랑의 기억과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밤늦도록 이어지던 이야기들처럼 우리는 다시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간다.

감미로운 발라드와 따뜻한 추억이 어우러지는 무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반가운 그들의 노래로 당신의 마음속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운다. 묵직한 감성과 진심으로 마음을 울리는 반장 '박지현', 담담한 듯 깊은 감성전을 지닌 우리 반 모범생 '최현준', 유쾌함과 진심 사이, 무대를 이끄는 분위기 메이커 '김경록'이 함께한다. 각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가 VOS의 노래로 다시 하나 되는 순간이다.

음악

이강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12월 2일(화)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051-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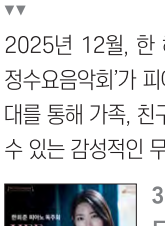


첼리스트 이강현의 독주회가 열린다. 이번 무대는 슈만의 <3개의 로망스>, <판타지 슈튀케>, <5개의 소품>, 그리고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으로 구성된다.

피아니스트 우용기와 함께해 두 연주자의 깊이 있는 호흡과 해석을 더하며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들려주는 품격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이강현은, 그룹 Baroque in Blue의 멤버로, 재즈신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과천 재즈 페스티벌, 뉴욕 한국문화원과 CJ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영 코리안 아티스트 시리즈', 그리고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에 초청되는 등 활발한 연주를 하고 있다.

1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12월 3일, 10일, 17일, 24일 (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4



2025년 12월, 한 해의 여운을 담은 저녁에 '금정수요음악회'가 피아노 독주, 국악, 실내악의 무대를 통해 가족, 친구와 함께하며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감성적인 무대를 준비하였다.

3일 한희준 독주회 <프렐류드 예찬: 프랑스 파리로부터> 피아니스트 한희준이 '쇼팽과 드뷔시의 프렐류드(전주곡) 전곡' 연주로 다양한 시각과 감정의 깊이를 다채롭게 표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10일 모던국악밴드 탈피 <Re: born> 전통적인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소통하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탈피만의 창작 국악을 만들어가는 모던 국악

팀으로, 해금, 가야금의 '현' 중심 곡들로 구성된 이번 무대에서는 탈피의 '서동경' 외 10곡을 연주한다.



17일 조민현 피아노 리사이틀 <La nuit(밤)>

'밤의 보석'이라는 의미의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를 중심으로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밤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에서는 프란츠 리스트의 '바닷가에서-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중' 외 6곡을 연주한다.



24일 고희의 보내지 못한 편지 <고뇌하는 영혼>

예술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을 위해 앙상블 팀 라 뮤즈(La Muse)가 미술과 음악이 융합된 아트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레데릭 쇼팽의 '야상곡(녹턴) 20번 올림 다단조, 작품 번호 미상' 외 4곡을 연주한다.

2025 을숙도문화회관 시리즈 예술공감

일 시 | 12월 2일, 9일, 16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14



▼▼
2일 제78회 예술공감
<EQ up 콘서트 - 아기고
끼리 바바와 함께하는 프
랑스 음악여행>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체험하는 가족음악

회로 풀랑의 '아기고끼리 바바'를 비롯해 프랑스 작곡가들의 자유롭고 유쾌한 작품을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피아노 솔로, 듀오와 스토리텔링 동화 영상으로 상상의 세계와 프랑스 음악의 색채, 매력을 전하는 무대이다.

9일 제79회 예술공감 <엄마의 일기장>

우리 기억 속 추억의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 두 장르의 음

악을, 이야기를 전개하며 음악이 연주된다.

우연히 발견된 엄마의 일기장을 통해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이것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식의 공연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무대이다.

16일 제80회 예술공감 <I Got Rhythm>

클래식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색과 장르로 편곡하여 클래식의 정형화를 깨는 공연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정서와 매력을 담아내어 타악기 각각의 매력과 리듬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헨델의 '사라방드'를 탱고버전으로,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을 삼바버전으로 연주하는 등 특색 있고 재미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2025 라이징 뮤지션 콘서트

일 시 | 12월 4일, 11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 (커피포함)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14



▼▼
4일 <타악으로 북적북적
뮤직 월드컵>

클래식, 라틴,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타악기만으로 연주하여 신선함과 모던함을 보여주는 무대이다.

다양한 타악기의 이해를 돕는 해설과 타악기 연주법을 소개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으로, 아프리카 심포니, 칼의 춤, 드럼세트 협주곡 등을 연주한다.

11일 <Hello Christmas>

클래식과 현대 영화음악을 한 무대에서 비교 감상하며, 서로 다른 장르가 표현하는 감정과 이야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이다.

특히 12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아 익숙한 캐롤 선율과 함께 따뜻한 겨울의 감성을 더할 예정이다.

씨어터 링크공연 재즈와 클래식의 행복한 만남

일 시 | 12월 5일(금)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14



▼▼
초겨울에 어울리는 재즈와 클래식의 콜라보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미국 음악의 거장, 거슈윈과 번스타인의 음악을 심도 깊게 감상하는 무대로 20C 미국 음악의 혁신을 이끈 두 작곡가의 명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융합과 시대의 활력을 공감하는 무대이다.

이번 무대를 준비하는 부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7년 창단된 민간 오케스트라로 열정과 도전 의식을 가진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음악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문화의 보편화를 지향하는 오케스트라이다.

김영옥x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8 Seasons>

일 시 | 12월 6일(토)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1~4



▼▼
고풍스러운 음식으로 바로크의 정수를 생생하게 전하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와 탱고의 열정으로 현대적인 감성이 더해진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두 거장의 사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은 노부스 콰르텟 멤버로 활동하며 독보적인 음색과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원전음악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은 실내악의 섬세함과 앙상블의 에너지를 겸비한 대표 실내악단이다.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의 친절함 해설과 함께 바로크 시대에서 현대로 이르는 두 세계의 강력한 음악적 서사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나눔행복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Musique dans la vie

일 시 | 12월 10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
합창음악을 통해 '내 삶의 즐거운 변화'와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창단된 나눔행복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Musique dans la vie'라는 타이틀로 연주회를 가진다.

'삶 속에서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타이틀답게 음악이 주는 위로와 변화의 힘을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권혁재 기타리스트와 팜페라 송클레어가 게스트로 참여하며, 김성민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한자리에 풍성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오페라페 콘서트 시즌 2 -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 **오페라 라보엠**

일 시 | 12월 11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오페라페’는 오페라(Opera)와 예술(Arte)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융합한 공연이란 뜻으로, 해설가 김성민과 함께하는 오페라페 시리즈는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과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해운대문화회관만의 콘텐츠다.

이번 공연은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 [라보엠] 하이라이트 부분을 연주한다.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예술을 꿈꾸는 젊은 보헤미안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해설로 역사와 문화, 음악적 배경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프라노 이지현, 소프라노 박나래, 테너 전상용, 바리톤 정준식, 피아노 김예지가 함께한다.

한수진 & 피터 오브차로프 송년 듀오 콘서트

일 시 | 12월 13일(토) 오후 4:0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학생석 1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 051-853-2341



그랜드오페라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부산콘서트홀에서 ‘2025 한수진 & 피터 오브차로프 송년 듀오 콘서트’를 연다. 공연은 “힘들었던 2025년, 음악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주제로, 클래식 초심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명곡 위주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아르보 패르트의 ‘겨울 속의 겨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제의 오페라를 호로비츠가 편곡한 ‘카르멘 변주곡’이 이어진다. 2부는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과 스페인 집시 음악의 정수를 담은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41회 굿모닝콘서트 피아니스트 최지은과 함께하는 Winter Harmony

일 시 |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 (커피포함)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한 해의 끝자락, 연말의 감성을 음악으로 전하는 시간을 굿모닝 콘서트와 함께 한다.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최지은의 반주 예술을 중심으로 섬세한 터치와 깊은 호흡 속에서 성악의 목소리와 바이올린의 선율이 어우러진다. 반주를 통하여 음악을 이끌고 전체를 하나로 묶는 조화의 중심 예술을 느낄 수 있으며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감정, 노래가 전하는 인간의 목소리의 온기, 바이올린이 그려내는 따뜻한 울림이 만나 겨울 아침을 감싸는 공연이 펼쳐진다. 아침 햇살처럼 포근하게 퍼지는 음악의 여운을 굿모닝콘서트에서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

무용

온가족 힐링 동화발레 **백조의 호수**

일 시 | 12월 6일(토)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공연으로 마련된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음악 선율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발레 동작들이 어우러져 아이들은 물론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사악한 마법사 로드발트의 저주를 받아 백조로 변한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가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풀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공연을 선보일 서울시발레단은 2009년에 창단하여 수준 높은 클래식 발레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작품들을 공연하여 발레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11시 브런치 콘서트 **비바 퍼커션!**

일 시 | 12월 23일(화)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커피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1~4



2025년 마지막 브런치 콘서트는 ‘비바 퍼커션!’이란 특별한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채롭게 준비한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플루트와 피아노, 마림바가 어우러진 특별한 트리오의 조합으로 마련했다.

드뷔시의 ‘달빛’, 우리나라 민요 ‘새야 새야’,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 다양한 음악을 신선한 편곡으로 즐길 수 있게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연주에는 마림바 심선민, 플루트 안명주, 피아노 송영민이 함께하며 특별히 송영민의 재치 있는 해설이 곁들여진다. 바쁜 일상은 잠시 잊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최민경 피아노 리사이틀 Lecture Concert - **고귀한 삶과 음악**

일 시 | 12월 26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010-9496-2687



피아니스트 최민경은 독일 유학 시절 쇼팽음악의 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의 밤, 베토벤 음악의 밤, 협주곡의 밤 등에 출연하여 연주자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다.

2007년 귀국 독주회를 비롯하여 사랑과 감사의 음악회(서경희 교수 재직 30주년 기념), 부산대학교 작곡 교수음악회 등 수차례 연주하였으며, 2025년 부산 작곡가 협회, 작곡 그룹 Anti-Stimmung, 대구 작곡가 협회 연주 등으로 음악계의 찬사를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 음악의 아름다움을 아는 연주자로서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히 표현하며 섬세한 감성과 다양한 음색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는 솔리스트이다.

발레 호두까기인형

일 시 | 12월 13일(토) 오후 1:00,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1~4



원작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을 각색하여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한 감각적인 스타일의 호두까기인형을 선보인다.

'한 소녀의 성장과 추억의 기록'이라는 현대적 서사를 담은 감성 판타지 발레로 완전히 색다른 모습을 담아냈다.

강렬한 신체 언어로 주목받는 컨템포러리 발레 전문 단체 '정형일 Ballet Creative'가 참여한다. 특히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발레리노 김경원은 작품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상적인 여정 속에서 매력적인 왕자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 내한
'호두까기 인형' - 부산

일 시 | 12월 20일(토) 오후 2:00, 6:00,
21일(일) 오후 1:00, 5:00,
24일(수) 오후 7:30,
25일(목) 오후 1:00, 5:00

동서대학교 소향시어터 신한카드홀

※월, 화 공연 없음

입 장 료 | VIP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발레의 중심지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호두까기 인형>으로 다시 한번 한국을 찾는다. 차이코프스키

의 고전발레 3대 명작 중 하나로 화려한 의상과 무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화려한 꽃의 왈츠와 눈송이 요정들의 아름다운 단체 군무는 고전 발레의 우아함과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19회 스페셜 아티스트 발레 'Swan
On Steel-철근 위의 백조'

일 시 | 12월 27일(토)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악히 잘 알고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가 현대적으로 재조명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주호 안무가가 새롭게 각색한 '백조의 호수' 특징 중 하나는 캐릭터들의 현대화다.

오데트는 환경운동가로, 지그프리트는 건설회사 대표 및 부동산 투자를 하는 회사의 아들로, 로트바르트는 지그프리트 아버지의 아파트 재개발 건립 의지를 부추기는 부동산업자로 변주된다. 로트바르트에 의해 백조가 되는 저주에 걸린 오데트에 지그프리트가 반하면서 이야기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백조와 등장인물들의 낭만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이야기는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판타지적인 측면은 보존된다.

연극

구 문화회관 합동 공연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왕'

일 시 |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본래홀(대공연장)
12월 19일(금) 오후 7:30, 20일(토)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일반 2만원, 정기회원 1만5천원,
VIP회원 1만원 (영도문화예술회관),
전석 2만원(해운대문화회관)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공연으로 영도문화예술회관과 공동 제작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연극 <리어왕>은 허울뿐인 말에 속아 경솔한 판단을 내린 끝에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노년의 왕을 통해 진실의 가치를 조명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이끈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리어왕 역에는 전 부산시립극단 단원 박찬영 배우가 함께한다.

연극 아빠집 영도

일 시 | 12월 11일(목)~12일(금)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본래홀(대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1만4천원, 정기회원 1만원
VIP회원 7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연극 <아빠집 영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 가족의 해체와 노년의 삶, 실패와 성공 속의 이면들을 담담히 들려준다.

각자의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가족을 마주하는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한때 바다를 누비던 선장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영도에 홀로 남은 아버지, 그리고 상처를 안고 돌아온 딸.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은 관객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선사한다. 이번 작품은 잊힌 시간 속에서 다시 연결되는 가족의 마음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관객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등불의 길, 그 빛을 따라

의사연대기-생명을 받들다

일 시 | 12월 12일(금) 오후 3:00, 오후 7:30,
13일(토)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극단 에저도 051-852-9161



환자를 볼모로 일어나고 있는 의료 파업 속에서 진정한 의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의미는 무엇인지 '의사 김원목'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의사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념을 지키며 그 상황을 극복하여 이겨내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의사로서의 신념과 의지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대를 분리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며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전개해 이야기에 입체감을 주는 무대이다.

뮤지컬

송년음악회 뮤지컬 토크쇼 별이 빛나는 동래

일 시 | 12월 28일(일) 오후 5: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연말의 따뜻한 공기를 가득 머금은 송년음악회 뮤지컬 토크쇼 '별이 빛나는 동래'. 자연과 함께하는 라디오 공개방송과 같은 현장 토크 뮤지컬 갈라쇼로 유명 뮤지컬 넘버와 진행이 함께하는 신선한 공연이다. 조용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대화와 따뜻한 멜로디가 객석을 은은하게 감싸고, 누구나 한번쯤 떠올렸던 자신의 이야기까지 조심스레 불러내는 시간이다. 뮤지컬의 감동적인 넘버와 배우들의 생생한 호흡이 관객과 소소하게 공감하며, 한 해의 끝에서, 별빛처럼 반짝이는 이야기와 음악이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는 공연이다.

이은결 <TRACK> - 부산

일 시 |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6:30, 7일(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아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이은결이 29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의 대표작과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실험작들을 집약한 무대다. 기억과 발자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주제로 단순한 마술 공연을 넘어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았다. 퍼포밍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아 온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기존 마술의 틀을 깨고, 음악·미술·언어처럼 삶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장르로 확장시킨다. 기존 뮤지컬이나 콘서트에서 볼 수 없었던,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마술과 예술,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가족극

산타가 된 후크선장

일 시 | 12월 17일(수)~21일(일) 오전 10:30, 오후 2: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3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동화공모전 최우수작품 선정작을 가족 뮤지컬로 제작한 빅픽처스테이지의 신작 가족 뮤지컬이다. 피터팬과 후크선장은 끝없는 싸움으로 지쳐있다. 전투 도중 '꽤' 악어'의 출현으로 후크가 삼켜지고, 악어의 뱃속에서 팅커벨과 조우한다. 팅커벨의 마법으로 차원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눈 덮인 세계로 빨려 들어간 곳은 산타 마을이다. 갑자기 나타난 순록들은 후크에게 '산타'라 부르며 선물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얼떨결에 산타 역할을 맡은 후크는 팅커벨과 함께 선물을 배달하게 된다.

콘서트가이드 감성민과 함께하는

영도에서 떠나는 예술여행 '인상주의와 현대미술'

일 시 | 12월 20일(토)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1만원, 정기회원 7천원, VIP회원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2025년도 렉처콘서트는 예술사를 기반으로 시대별 예술가들을 조명하고 있다.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시대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인상주의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음악과 미술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탐구한다. 세기가 전환되는 19세기와 20세기의 예술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마네, 모네, 클림트, 쇠테, 위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이에 어울리는 음악이 함께한다.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강의로 진행되며, 소프라노 한보라, 테너 오영민, 바리톤 정준식, 피아니스트 김예지가 함께한다.

콘서트

낭만이 흐르는 7080 심쿵 콘서트

일 시 | 12월 4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 장 료 | 2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7080세대를 아울렀던 서울패밀리 '위일청', 배따라기 '양현경'을 초대해 우리에게 익숙한 레퍼토리의 곡으로 구성된 콘서트이다. 위일청은 1984년 그룹사운드 '서울패밀리'를 결성하여 꾸준히 음원 발매를 이어나갔으며, 이번 공연에선 솔로 앨범 '애모'와, 서울패밀리 1집 '내일이 찾아와도', '귀거래사', '올드팝' 무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현경은 1983년 배따라기 2집 '그대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로 데뷔하여 음원 발매 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대는 봄비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비몽', '비와 찻잔사이'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2025 송년콘서트 트롯 빅쇼

일 시 | 12월 20일(토)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1~4



4살부터 트롯을 시작하며 MBC <트롯챔피언> 1위, KBS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5승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양지원'과 TV조선 <미스트롯2> 최종 3위, MBN <한일가왕전> MVP 1위를 차지하며 '청학동 트롯요정'이라 불리는 '김다현', 그리고 '트롯계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김수찬'이 한 자리에 모여 특별한 송년 콘서트 '트롯 빅쇼'를 개최한다. 울거울,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가수가 꾸미는 이번 무대에서는 깊어지는 겨울밤을 트롯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트롯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남녀노소 세대공감쇼에 함께 하길 바란다.

2025 다이나믹 듀오 단독 콘서트 '가끔씩 오래 보자' - 부산

일 시 | 12월 20일(토) 오후 6:00, 21일(일)
오후 5: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전석 13만2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대한민국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가 부산 팬들을 만난다. '가끔씩 오래 보자'는 정규 7집 수록곡 명에서 착안해 명곡을 망라한 그들의 브랜드 공연으로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을 이뤘다.

국내 힙합 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만큼, 다이나믹 듀오는 매 공연에서 명곡이 끊이지 않는 세트리스트를 선보이며 남녀노소 전 세대 관객들과 교감하고 있다. 탁월한 라이브 퍼포먼스는 물론, 개코와 최자가 보여주는 매력적인 케미스트리로 매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일 시 | 12월 22일(월)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5만원, 정기회원 3만5천원,
VIP회원 2만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피아노로 전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음악들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작고 소중한 것들에 보내는 찬사 <Peacefully> 공연으로 찾아온다. 명료하고 담백한 음악의 언어로 둘러싸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나지막하게 이야기한다.

1부는 피아노 솔로 연주로, 2부는 유키 구라모토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콰르텟과의 연주로 진행된다. 피아노 퀸텟 편성은 유키 구라모토가 특별히 애정하는 편성으로 바이올린과의 듀오, 플루트와의 듀오, 바이올린, 첼로와 트리오 등 다양한 변주가 가능해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2025 손태진 전국투어 콘서트 It's Son Time - 부산

일 시 | 12월 24일(수) 오후 7:30, 25일(목)
오후 4: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VIP 16만5천원,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2016년 JTBC '팬텀싱어' 초대 우승 팀 포르테 디 콰트로의 감성 베이스이자 2023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 손태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It's Son Time'은 '손태진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손태진은 이번 공연에서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클래식 기반의 탄탄한 보컬, 재치 있는 무대 매너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국 투어를 통해 한층 깊어진 손태진의 음악 세계를 그릴 예정으로 그의 진심을 공연 전반에 담아내며 '손태진의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전국 투어를 통해 한층 깊어진 손태진의 음악 세계를 그릴 예정으로 그의 진심을 공연 전반에 담아내며 '손태진의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사

2025 임정희 송년콘서트

일 시 | 12월 26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해운대문화회관이 특별히 마련하는 송년 무대 '2025 임정희 송년콘서트'. 2005년 데뷔한 '거리의 디바' 임정희는 정적인 발라드뿐만 아니라 박자를 갖고 노는 끼와 리듬감, 댄스 등 폭넓은 장르를 무리 없이 소화해 내는 가수로 'Music is my life', '시계태엽', 'Golden Lady' 등 대표곡들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임정희의 대표곡을 비롯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국제아동도서관

일 시 | 12월 11일(목)~13일(토) 오전 10:00 ~ 오후 6:00, 14일(일) 오전 10:00 ~ 오후 5:00 **백스코 제1전시장 3홀**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입 장 료 | 성인·청소년 5천원(사전등록시 무료)
문 의 | 대한출판문화협회 02-733-8402

제2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크리스마스특집 매직갈라쇼

일 시 | 12월 13일(토) 오후 2:00,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4만원, S석 2만5천원
문 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051-626-7002

겨울특강, 사랑과 방랑의 선물

일 시 | 12월 16일(화)~18일(목) 오후 7:30, 20일(토) 오전 11:00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051-640-8826

클래식 인문학 -

베토벤에서 김광석까지

일 시 | 25년 12월, 26년 1,2,3~6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00~오후 12:00 **동래구 복산동 하하센터(3층 강의실)**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동래구 복산 하하센터 051-550-5896

프로그램

- 클래식 왕초보를 위한 길라잡이- 클래식음악에 입문하기
-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전막 감상
- 베토벤 [교향곡 특집] 1,2,4,7,8,번 교향곡
- 19세기 낭만파 체코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생애와 음악
- 베토벤 합창교향곡 발레공연 {댄싱 베토벤}
- K아트 팝 가곡 싱얼롱, 가곡 부르기 등

김옥균의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뮤직 아트홀(UN평화공원 옆)

입 장 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

프로그램

-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 전막감상
-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하이라이트
- [K-art pop 가곡] 송년

특집

-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 홀스트-모음곡 '혹성'
- 엘가의 탄생지 영국 '웨일스' 다류 기행
-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 막스 브루흐- 스코틀랜드환상곡
- 송년특집 라이브 가곡의 밤- 12월 26일 (금) 17:00/ 백광상회특설무대

12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 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

프로그램

- 오페라/R. 슈트라우스 "아라벨라"(5~6일)
- R.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12~13일)
- 비제 "카르멘"(19~20일)
-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26~27일)
- 콘서트/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1,6일)
- 말러교향곡 제7번(8,13일)
- 말러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15,20일)
-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22,27일)
-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29일)

12월 아카데미

시네바움(CINEBAUM)

일 시 | 세부 일정 참고

시네바움(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25)

문 의 | 010-2774-3455(문자예약)

▼▼

- 12월 1일 <포스트-이미지 시대의 영화: 새로운 감각의 탄생> 19:00
- 12월 8일 <프랑켄슈타인: 존재의 해체와 아나키즘의 차연> 19:00
- 12월 15일 <바다의 어둠 속에서: 가쿠레 기리 시탄과 대항해 시대의 비밀 신앙> 19:00
- 12월 22일 <수학이 두려운 엄마들에게> 19:00
- 12월 29일 시네바움 스크리닝 — 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 19:00
- 12월 4일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 17:00
- 12월 18일 <하이쿠 산책> 17:00

전시

2025 유라시아부산국제아트페어

일 시 | 12월 4일(목) ~ 6일(토) 오전 10:00 ~

오후 7:00, 7일(일) 오전 10:00 ~

오후 5:00 백스코 제2전시장

※ 입장은 관람 종료시간 1시간 전에 마감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 중·고등학생 1만원, 초등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국제아트페어 051-806-1004



▼▼

2025년, 제24회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유라시아 부산국제아트페어”로 새롭게 출발한다. 부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예술적 교류의 지평을 확장하며, 동서양을 잇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250여 명의 작가와 3,00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아트페어는 다양한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풍성한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작가들의 감성을 느끼고, 예술이 선사하는 영감과 감동을 경험하길 바란다.

영남총축제 연계전시 춤추는 레고

일 시 | 8월 29일(금)~12월 21일(일)

오전 10:00 ~ 오후 6:00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체험관

※월·공휴일 휴관 / 12월 21일(일) 정상 운영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

일상의 사물과 전통의 가치를 연결하며, 작은 블록들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레고 메이커 콜린 진이 협업 작가로 참여한다.

첫 번째 조각 '부드러운 선, 춤이 시작되다', 두 번째 조각 '탈을 쓰고, 세상을 비추다', 세 번째 조각 '나만의 춤사위'. 총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전통춤의 아름다운 선과 동작, 장단의 리듬이 콜린 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장의 비밀: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

일 시 | 25년 9월 30일(화)~26년 1월 18일(일)

부산박물관

입 장 료 |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1만원 (부산시민 2천원 할인)

오전 9:00 ~ 오후 6:00

※매표 및 입장 마감은 관람 종료 1시간 전

※매주 월요일 휴관

문 의 | 부산박물관 051-610-7111



▼▼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아서 코난 도일, J.K. 롤링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국 문학 거장 78인의 초상화와 미공개 친필원고, 편지, 희귀 초판본 등 137점을 선보인다.

책 속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거장이 아닌,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작가들을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내가 사랑한 나의 캐릭터들에게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글 김민욱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의 삶에 비추고, 삶에 낭만적 자유연애와 페미니즘을 버무린다. 다양한 문학적 참조와 여성해방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이보다 마음을 울리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책임 의식'이다.

책상에 앉은 셰익스피어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미지가 공연 시작과 끝에서 반복된다. 그의 공연의 캐릭터를 연기할 마을 사람들과 그에게 영감을 주는 친구의 애정 어린 시선은, 비



극으로 맺을 수밖에 없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희극을 쓸 의지를 갖게 한다. 오직 그를 둘러싼 캐릭터들의 행복을 위한 의지를. 자신의 연극 속 캐릭터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 준 것처럼 자신도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반영된 이 이야기는, 작가가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에게 가져야 할 책임을 문학적으로 반영하고,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묘한 위로를 보낸다.

아는 만큼 보이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 감동하다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展

글 임윤정 부산진구 전포대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을 다녀왔다. 이름은 익숙했지만, 작가의 삶과 작품은 잘 몰랐기에 궁금함과 기대를 안고 관람했다. 원작은 멕시코 법으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이번 전시는 복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가까이서 세밀히 볼 수 있어 좋았다. 2시 도슨트 해설을 들으며 프리다 칼로의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인생과 작품 변화를 접하니, 무섭게만 느껴졌던 그림이 점



점 다르게 다가왔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그림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한 그녀의 강인함이 인상 깊었고, 마지막 작품 '비바라 비다(삶이여 만세)'의 의미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해설 후 다시 작품을 돌아보며 그녀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마지막 체험 공간에서 머리 장식을 해보고 색칠을 하며 즐겁게 마무리했다. 감동과 체험이 함께한 오래 기억에 남을 전시다.



그림책에서 가족을 만나다

방현주 지음
해피북미디어 / 2만 2,000원

가족학을 전공한 그림책 테라피스트 방현주 저자가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책들을 선별하여 가족의 복잡한 감정을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신라대학교에서 가족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지냈다. 지금은 웰가족교육상담센터 운영 및 부산가정법원 등 여러 관련 기관에서 가족교육과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책 지도사 과정을 거쳐 그림책 테라피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가족은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알기 어려운 존재다. 저자는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을 불러오는 그림책의 힘과 가족학적 성찰이 만날 때 '가족'이라는 익숙한 단어는 새로운 빛을 띠고 알려준다. 간결한 이야기와 상징적인 이미지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가족의 다양한 얼굴과 다층적인 의미가 차례로 드러난다. 가족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안내서이자, 그림책이 더 이상 어린이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박물관 스토리텔링

황운 지음
소동 / 2만 4,000원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 등으로 역사와 예술의 흐름을 맥락으로 읽어 내는 문화 스토리텔러 황운 작가가 우리 문화의 이야기를 세계로 풀어내는 법을 제시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묻고, '앞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가 어떻게 자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해외 관람객도 우리 문화와 예술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선보여야 할 때다. 예술과 문화가 주는 힘으로 세계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퐁피두센터와 같은 세계적 뮤지엄들이 어떻게 자국의 예술을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 자리매김시켜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족보 스토리텔링'이라는 독창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다양한 전시 사례를 통해 '맥락이 있는 서사'가 예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키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패션, 영화 속 미술을 그리다

진경옥 지음
산지니 / 2만 5,000원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패션, 음악 영화를 노래하다> 등을 통해 영화 속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를 들려줬던 진경옥 교수가 이번에는 패션과 영화 그리고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손꼽히는 한스 홀바인부터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요하네스 베르메르, 빈의 대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흐와 피카소,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앤디 워홀과 바스키아에 이르기까지. 패션 산업과 패션 트렌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열 명의 예술가와 그들의 생애를 담은 영화를 소개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열정의 랩소디>, <물렁 루즈>, <팩토리 걸>, <불멸을 찾아서> 등의 영화를 통해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비범한 인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시대를 뒤흔든 예술 작품들이 현대 패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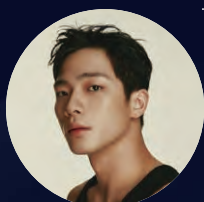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하반기 아카데미

스테이지파이터

무용 클래스

정상급 무용수에게 배우는 현대무용, 발레 원데이 클래스

현대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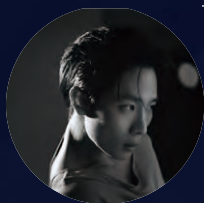


김현호

12.06.(토)

A 11:00-12:30

B 14:00-15:30



윤혁중

12.14.(일)

A 11:00-12:30

B 14:00-15:30

* 패키지 할인 안내 *

현대무용 12. 06. 원데이(2개 강좌) 8만원

현대무용 12. 14. 원데이(2개 강좌) 8만원

* 패키지 할인 안내 *

발레 초급(4개 강좌) 16만원

발레 중급(4개 강좌) 16만원



| 신청기간 | 11. 21.(금)-선착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bscc.or.kr
(아카데미>수강신청)
| 수 강 료 | 각 회차별 50,000원

발레



김경원

12.07.(일)

초급 11:00-12:30

중급 14:00-15:30



정성욱

12.13.(토)

초급 12:00-13:30

중급 14:00-15:30



김유찬

12.20.(토)

초급 12:00-13:30

중급 15:00-16:30



강경호

12.21.(일)

초급 11:00-12:30

중급 14:00-15:30

December 2025

부산문화회관 하반기 아카데미 <스테이지 파이터> 무용 클래스

발레, 현대무용 원데이 클래스

시민들의 높아진 열기, 전문 교육 수요 확대

(재)부산문화회관은 최근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공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무용에 대한 관심과 학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오는 12월 무용 원데이 클래스 강좌를 마련한다.

최근 성인 취미로 발레와 현대무용을 배우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한 무용수들을 초청해 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025년 12월, 총 6일 차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발레와 현대무용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스테이지 파이터> 참가 무용수들이 직접 지도해 높은 기대를 모은다. 수강생들은 전문 무용수들의 지도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무용의 매력을 보다 깊이 체감할 수 있다.

정상급 무용수들과 함께하는 실전 중심의 발레 클래스

발레 부문은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강경호, 김경원, 김유찬, 정성욱 등 4명의 실력파 무용수가 직접 지도를 맡아 수준 높은 레슨을 제공한다.

강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운영되며, 초급반은 발레 수강 경력 6개월 이상, 중급반은 1년 이상 수련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감각적 움직임에 집중하는 현대무용 클래스

현대무용 부문 역시 '스테이지 파이터' 출연 무용수인 김현호, 윤혁중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강사진 구성을 완성했다.

현대무용 클래스는 정해진 안무를 습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가 가진 감각과 호흡, 움직임의 확장으로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체 언어를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움직임의 표현을 배우게 된다.

성인 취미 무용인을 위한 12월의 선물

이번 아카데미는 12월 6·7일, 13·14일, 20·21일 총 3주간 주말마다 진행되며, 부산에서 성인 발레, 성인 현대무용을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부산시·부산시교육청·(재)부산문화회관 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사업 「어릴적예(藝)」 2026년 오프라인 매칭데이 개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진하는 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사업 2026년 선정 작품과 학교를 이어주는 2026년 어릴적예(藝) 오프라인 매칭데이가 오는 12월 10일과 11일 부산문화회관 배움터와 사랑채극장에서 열린다.

‘어릴적예(藝)’는 2023년 부산시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명 ‘어릴적예(藝)’는 ‘어릴 적부터 예술 경험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어릴 적+예술(藝)’ 조합으로 명명되었다. 어릴적예 사업 관람 첫해인 2024년은 54개교 13,908명이 어릴적예 선정 23개 작품을 관람한 바 있고, 2025년은 11월까지 53개교 14,082명이 어릴적예 선정 작품을 관람했다.

‘어릴적예(藝)’ 2026년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각 분야 전문

교사와 문화예술기관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음악(6개), 전통예술(4개), 무용(2개), 연극·뮤지컬(8개), 다원예술(3개) 등 장르별 총 23개 작품을 1차 선정하고 2026년 공연 매칭을 위한 첫걸음인 오프라인 매칭데이를 통해 교육 관계자들에게 공개된다. 오프라인 매칭데이에서는 23개 팀의 작품 소개 및 매칭을 위한 단체별 부스에서 공연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작품 정보를 공유하고, 컨퍼런스홀과 사랑채극장에서는 BEST 10으로 선정된 단체의 쇼케이스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어릴적예(藝)’는 2026년 오프라인 매칭데이에 참석이 어려운 교사, 관계자들을 위해 부산문화포털 ‘다봄’에서 선정 작품의 홍보영상과 공연 상세 자료들을 업로드, 2026년 공연 예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에(藝)

부산지역 학생들의 어릴적 예술 경험을 채워줄
'어릴적+예술' 프로그램, 어릴적에(藝)

공연 관람 시기

2026년 4월 ~ 12월

장소

부산시 내 공연장 ※작품별 상이

작품 장르

음악/전통예술/무용
연극·뮤지컬/다원예술

관람대상

부산시 초·중·고등학생

사업내용

학교·공연장·공연단체의
매칭을 통한 부산시 학생대상
공연 관람 기회 제공

MATCHING DAY

일시	2025. 12. 10.(수)~12. 11.(목)
장소	부산문화회관 배움터, 사랑채극장
행사내용	작품별 홍보 부스 운영 및 쇼케이스 관람
참여대상	부산 내 초·중·고 교사, 예술인, 학생교육공연에 관심있는 시민 등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사업팀 (051-607-3112~3)

✉ arts_edu2024@bscc.or.kr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

부산시립예술단 관객맞춤 공연 2026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희망 기관 모집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26년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행사 개요

-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 부산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운영 개요

- 접수기간 : 2025. 11. 24. ~ 2025. 12. 19.
- 공연기간 : 2026. 2. 1. ~ 2026. 12. 31.
- 공연단체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공연규모 및 성격 : 행사 및 단체 특성에 따른 협의로 진행
(단, 공연은 특정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은 신청 불가)
- 소요시간 : 40분 이내
- 신청가능행사 : 부산지역 부산시민을 위한 행사(복지관 등 문화 필요 계층)
- 접수방법 : 전자우편 bsccityart_go@bscc.or.kr
※ 접수마감 후 선정 회의를 거쳐 공연 단체, 공연 일정, 프로그램 선정
- 출연료 : 무료(조명, 음향 등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 경비는 기관 부담)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051-607-3114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6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대표번호 051-607-6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7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

2026.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빵아>

문화 | 중극장 2025. 11. 14.(금)-16.(일) 금요일 7:30pm,
토요일 일요일 2: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 | 김은성
- 연출 | 김태형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 | 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3: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 | Katrín Hall
- 안무 | Alexander Ekman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오케스트라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따뜻한 감성동화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구름빵>

문화 | 중극장 2026. 1. 23.(금)-24.(토)
금요일 10:30am, 2:00pm, 토요일 11:00am,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프로듀서 | 정유란
- 연출 | 이태린
- 극본 | 서희정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당신의 삶이 영화가 되는 시간

시네마 파라다이스 <Begin Again>

문화 | 중극장 2026. 3. 14.(토) 2:00pm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출연 | 홍진호(첼로), 박현수(보컬), 조운성(피아노), 석다연(드럼), Sean Pentland(베이스)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피와 욕망, 권력에 눈먼 자들의 광기

연극 <칼로막베스>

문화 | 중극장 2026. 4. 4.(토)-5.(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가



사실 그 날, 용궁에선 기록에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사랑채 2026. 5. 2.(토) - 7. 25.(토)

평일 10:30am, 토요일 및 공휴일 11:00am, 2:00pm

*일요일 및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30,000원



※ 『예술의초대』 11월호에 소개된 이혁&이효 듀오 콘서트가 연주자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관람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회관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물, 부산의 미래를 울리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 | 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 | 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 | 오치운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농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관람연령 | 48개월 이상 관람



우리 크리스마스에 불까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시민 | 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기억이 불러온 가상은 현실의 위로일까, 망상일까

연극 <시물라시옹>

시민 | 소극장 2026. 1. 16.(금)-17.(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전석 50,000원

- 연출 | 이태린
- 작가 | 최양현
- 출연 | 송철호, 신사랑, 유연, 안창현, 임지영, 송예준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6. 2. 27.(금), 6. 19.(금),

8. 21.(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출연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시민 | 소극장 2026. 2. 28.(토) 11:00am, 2:00pm

전석 30,000원

- 출연 | 라보(시간여행 가이드), 챔버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0개월 이상(1인 1티켓 소지)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발레의 정수

발레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6. 3. 19.(목)-20.(금)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60,000원

A석 30,000원

- 출연 | 미정
- 음악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 안무 | 유리 그리고로비치 Yuri Grigorovich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추후 티켓 오픈

추후공개

진짜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뮤지컬 <인사이드 미>

시민 | 소극장 2026. 3. 28.(토) 2:00pm,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연출 | 서홍석
- 음악·안무 | 이윤희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데뷔 70주년을 맞은,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6. 4. 3.(금) 7:30pm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백건우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동서양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시민 | 소극장 2026. 4. 10.(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김 솔 다니엘(첼로), 윤다영(가야금)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무속음악의 펑키(funky)함을 전하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혜차지스

시민 | 소극장 2026. 4. 17.(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추다혜(리더, 보컬), 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 부문 ‘최우수상’ 수상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시민 | 소극장 2026. 4. 23.(목) 2:00pm, 24.(금) 2:00pm,

7:30pm, 25.(토) 2:00pm

전석 40,000원

-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연출 | 홍성연
- 출연 | 강나리, 구옥분, 서인권, 신재열, 류찬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하츠피핑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시민 | 대극장 2026. 5. 2.(토) 5:00pm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출연 | 지휘자 김성진, 디토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6인

※ 관람 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소지)



화류비련극의 레전드가 온다

화류비련극 <홍도>

시민 | 대극장 2026. 6.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임선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각색/연출 | 고선웅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집착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시민 | 대극장 2026. 8. 29.(토) 3: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출연 | 김준수 외 (추후공개)
- 원작 | 오스카 와일드 Salome
- 극본 | 고선웅
- 연출 | 김시화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공연계 최고 권위의 상 “TONY AWARDS!” 6관왕 수상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 시민 | 대극장** 일정 및 가격 추후 공지
- 작작사 | 박천후 Hue Park
 - 작작곡·편곡 | 윌 애런슨 Will Aronson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2026 시민트락축제(상반기)>

- 시민 | 야외광장** 2026. 4-5월 예정 12:10pm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V
중인 III

- 문화 | 챔버홀** 2025. 12. 2.(화) 7:30pm
- 호른 | 백상홍, 박용인
 - 피아노 | 성민주
 - 바이올린 | 이상진



제626회 정기연주회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 부산콘서트홀** 2025. 12. 12.(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메조소프라노 | 이아경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아카데미소년소녀합창단



제627회 정기연주회
DIGNITY

- 부산콘서트홀** 2026. 1. 2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28회 정기연주회
겨울, 꿈

- 시민 | 대극장** 2026. 2. 26.(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신창용



제629회 정기연주회
축제

- 부산콘서트홀** 2026. 3. 26.(목) 7:30pm
낙동아트센터 2026. 4. 1.(수)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요한 달레네



제630회 정기연주회
EROICA

- 부산콘서트홀** 2026. 4. 24.(금) 7:30pm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김다솔



제631회 정기연주회
부산, 말러

- 부산콘서트홀** 2026. 6. 18.(목) 7:30pm
- 지휘 | 홍석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제199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25 송년음악회
British Modern & Baroque

-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UKO



부산시립무용단

제192회 정기공연

부산시립무용단 DoDream 두드림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 | 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함동교류연주회 함께 가는 길, 동행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 | 이동훈, 김창환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모든 날, 모든 순간

문화 | 중극장 2025. 12. 11.(목)~13.(토) 평일 7:30pm,

토요일 5:00pm

• 작연출 | 김민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2.(금) 7:30pm

• 지휘 | 백승현



제78회 정기연주회

제9번

문화 | 대극장 2025. 12. 9.(화)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Joy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 7:00pm~11. 1.(토) 3: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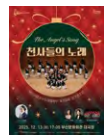


제168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The Angel's Song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지금 바로, 가장 빠른 혜택의 순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엘리버드 이벤트



조기예매 할인율
40%
~11. 30.(일)

연극
시물라시옹

2026. 1. 16.(금) ~ 17.(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1. 30.(일)
금요일 오전 회차
해당 사항 없음

가족 뮤지컬
구름빵

2026. 1. 23.(금) ~ 24.(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50%
~12. 31.(수)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2026. 2. 27. / 6. 19. / 8. 21.(금)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2. 31.(수)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드

2026. 2. 28.(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2. 31.(수)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2026. 3. 14.(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2. 31.(수)

뮤지컬
인사이드 미

2026. 3. 28.(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20%
~11. 30.(일)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26. 4. 3.(금)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2. 31.(수)

연극
칼로막베스

2026. 4. 4.(토) ~ 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2. 31.(수)

살롱드 국악 I
첼로가야금

2026. 4. 10.(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2. 31.(수)

살롱드 국악 II
추다혜차지스

2026. 4. 17.(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2. 31.(수)
평일 14시 공연은
해당 사항 없음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2026. 4. 23.(목) ~ 25.(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50%
~12. 31.(수)

볼링볼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2026. 5. 2.(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50%
~12. 31.(수)
평일 공연은
해당 사항 없음

가족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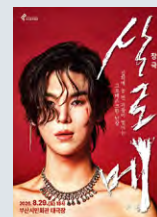
2026. 5. 2.(토) ~ 7.25.(토)
부산문화회관 사랑채



조기예매 할인율
50%
~12. 31.(수)

하류비현극
홍도

2026. 6. 12.(금) ~ 13.(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조기예매 할인율
40%
~11. 30.(일)

창극
살로메

2026. 8. 29.(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The Angel's Song
천사들의 노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프라노 **구은경**



지휘자 **김철수**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2025. 12. 13.(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지휘 박승현. 마릴바 박예지. 소프라노 이동민
메조소프라노 김가영. 테너 이명현. 베이스바리톤 유명현

“사랑요..”

17곡을 들으면 100% 토리에

100% 토리에

10월 12일 19:30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2025.12.09 19:3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Busan Philhamonic Youth Orchestra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 (ARS 1번)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 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권은 공연 관람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성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공동혜택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 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종료**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11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종료**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11월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종료**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12월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종료**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아음악회 **종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매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시물라시옹>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7:30
1월 17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구름빵>

2026년 1월 23일(금) 오전 10:30, 오후 2:00
1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7:30 **종료**
6월 19일(금) 오후 7:30 **종료**
8월 21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사 - 하이든>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종료**

2026년 3월 14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0매)

뮤지컬 <인사이드 마> **종료**

2026년 3월 28일(토) 오후 2:00,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1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6년 4월 3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0매)

연극 <칼로막베스> **종료**

2026년 4월 4일(토) 오후 3:00
4월 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2026년 4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혜차지스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2:00
4월 24일(금) 오후 2:00, 오후 7:30
4월 25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금 19:30, 토 14:00 회차별 10매)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2026년 5월 2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화류비련극 <홍도>

2026년 6월 12일(금) 오후 7:30
6월 1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창극 <살로메> **종료**

2026년 8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 1인 1매에 한해 예매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 『예술의초대』 11월호에 소개된 이혁&이효 듀오 콘서트가 연주자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관람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주)한성테크 회장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언기초건설(주) 회장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주)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주)상명 회장

2025 하반기 후원회 총회 및 음악회, 12월 12일(금)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607-6072)

-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에리카정애 명성피셔리 주식회사
- 이종원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명선 정민섭산부인과 원장
- 정민섭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준형 문우당서점 해광출판사 대표
- 하정태 (주)일신케미칼 사장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허혜영

※ 회원명 가나다순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With 공연예술아카데미 2기

모든 날 모든 순간

2025. 12. 11.THU - 13.SAT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평일 19:30, 토요일 17:00

작·연출 김민우

출연 황창기,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이혁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채민수, 이태성, 조정우, 박규한, 김성열, 윤영식, 이수현, 전용균
강승환, 김성인, 김승완, 김시아, 김정민, 김지유, 박준희, 배유빈, 이윤희, 정지수, 정충인, 최선희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문의전화** 051)607-6000 (ARS 1번)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센터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2025. 11. 26.(수)~12. 10.(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12. 19.(금)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11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6701

010-****-1803

010-****-9610

010-****-5760

010-****-6722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 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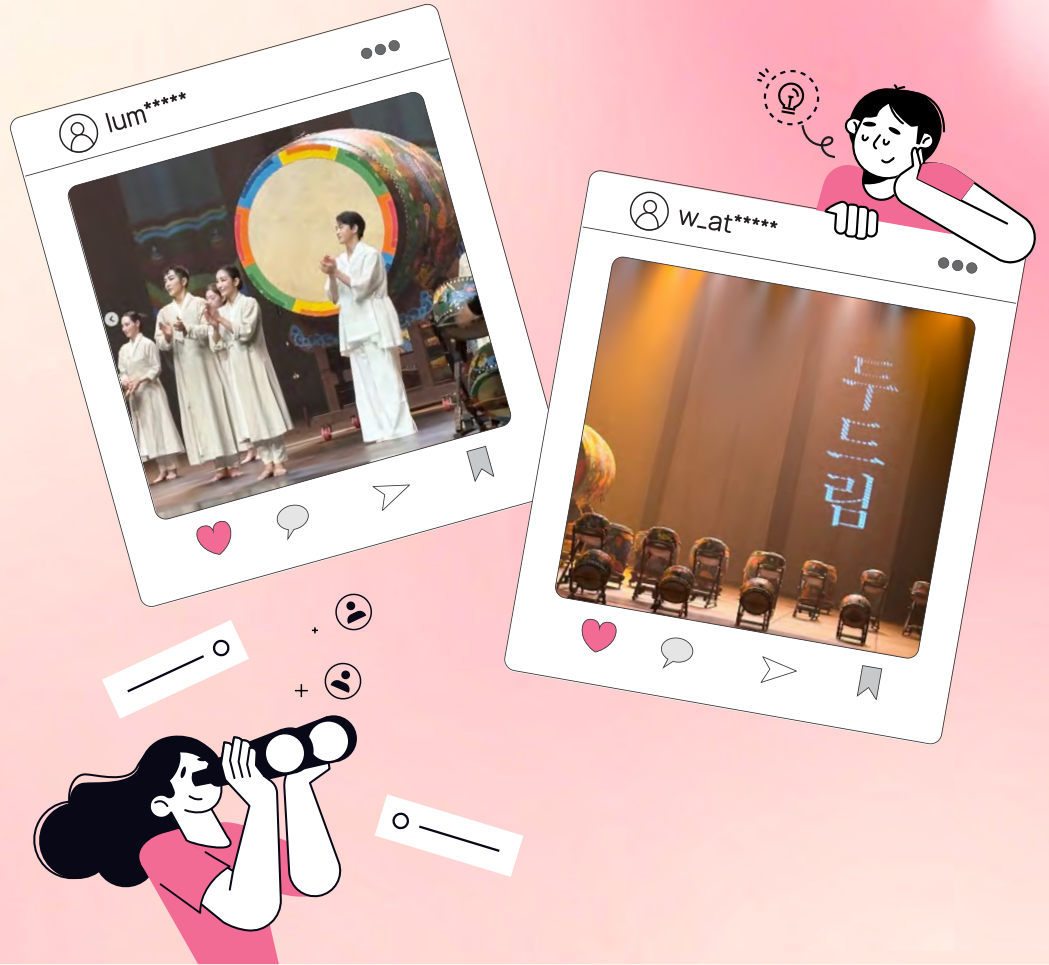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부산 시립무용단
Busan City Ballet

열 路 열 춤

예술감독
이정윤

with
움트다
(UMT-DA)

2025.12.5^(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2.6^(토) 15:00

부산시립무용단 with 움트다(UMT-DA)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나는 예술가다'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한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가 함께한 <움트다(UMT-DA) 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무용단

예매 www.bscc.or.kr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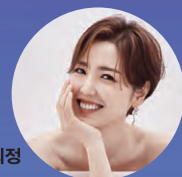
동행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소리 김준수



사회 정희정



태평소 권용석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지휘 김창환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가수 최성수



남도민요 박성희



남도민요 정선희



경기민요 김은정



가아금 윤경선



거문고 이대하



아쟁 홍영혜

Program

국악관현악 美! 樂! 挖!(Miracle)
민요를 위한 국악관현악 네오민요
3개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김준수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사철가 - 사랑가 - 아리랑 메들리
최성수와 함께하는 레트로 감성 8090 다시 오는 봄 -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 Whisky on the Rock

2025. 12. 18.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20,000원 S석(2층)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5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BPO SYMPHONIC SEASON 2025

사랑이 내게 말하는 쥬

말러 / 교향곡 제3번

*

지휘 홍석원 /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부산시립합창단 / 창원시립합창단 /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소년소녀합창단

626

2025.12.12.(금) PM 7:30
부산콘서트홀

주최 클래식부산,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따뜻한 감성동화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

구름바바

| 프로듀서 | 정유란
| 극본 | 서희정
| 작곡 | 신경미
| 연출 | 이태린
| 안무 | 이서은



2026. 1. 23.(금) 10시 30분, 14시 / 1. 24.(토) 11시, 14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주)문화아이콘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추천 연령 4-6세)

| 티켓 | R석 4만원, S석 2만원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www.bscc.or.kr)

*1월 23일(금) 10:30회차 단체관람만 가능

©All Rights Reserved by GIMC, DPS, Hansol, KBS, Carloon / Original (work) Baek hee-ni



2026. 1. 16.(금) 19:30, 17.(토) 1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

송철호 신시광 유 연 안창현 임지영 송예준

[미래의 현대인에 대한 추상]

연극 시뮬라시옹

작 최양현 연출 이태린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입장료 | 전석 5만원 입장연령 | 7세 이상 문의 | 051-607-6000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제작 | 예술창작공장 콰안드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체 ARKO Partners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공연 | 25-26 쿼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선정작



2025

NEW YEAR'S EVE CONCERT

제야음악회

2025. 12. 31.(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관람연령 | 7세 이상

| 예매 및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www.bscc.or.kr)

